

제2682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8일부터 접수 **5**

최재형, 국민의힘 전격 입당 **9**

## 하반기 증시 투자 키워드는 '아헬소신'

<IT·헬스케어·소비재·신재생>

### 제8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투자 전문가 강연 유튜브로 생중계  
수천 명 로그인 '재테크 꿀팁' 공유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하반기에도 주요 투자 전략으로 꼽혔다. 부동산 시장은 교통망 확대 공사 구역을, 주식 시장은 IT·헬스케어·소비재·신재생 분야를 주목하라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관련기사 2·3면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제8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이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빌딩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열렸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안전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2022, 로그인 머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부동산, 주식투자, 가상자산(가상화폐) 등 각계 분야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섰다. 이들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내년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 수천 명의 시청자가 실시간 접속해 전문가들의 강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부의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1주택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체 50%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주식 시장에서는 '솔



이투데이가 주최한 '제8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이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빌딩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열렸다. 올해는 '2022, 로그인 머니'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안전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주식 투자로 1년 만에 1500만 원의 수익을 내 유명해진 14세 유튜버 권준(쭈니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군과 그의 어머니 이은주(쭈니맘, 세 번째) 씨가 출연해 '경제적 자립을 위한 경제공부를 시키자'라는 주제로 재테크 초보자들에게 경제교육의 노하우를 알려 주고 있다.

림 투자를 경계하고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조언이 주를 이뤘다.

온라인으로 열린 개막식에서는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건전한 금융 투자는 우리 국민이 부자가 되고 나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성실히 일하고 자신의 노력과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된 임금을 통해 인생을 설계하고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것

인지 적절한 제도적인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근의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원장 직 무대행) 역시 "투자자들이 건전하고 균형 감 있는 금융 투자의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 교육의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산시장에는 당면한 위험요인과 함께 다양한 기회 또한 공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위기와 기회가 혼재된 시장에서는 투자자 스스로가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투자자가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이사는 "최근엔 주식·부동산·가상자산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서 유사 이래 큰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슬기로운 금융 활동, 지혜로운 재테크에 대한 해안을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정부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신속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제도'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4번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셋째 주에 지급을 시작하고, 손실보상제도는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자는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올해 제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 1주 차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2주 차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3주 차에는 지급을 개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로 지급키로 했다.

## '희망회복자금' 내달 셋째주 지급 '손실보상제' 10월 8일 본격 시행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앞서 7월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바 있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8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손실보상은 근거 법률이 공포된 이후 발생한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게 되며, 손실의 정도에 따른 비례형·맞춤형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7~9월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을 지급한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앞서 중국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6% 이상'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목표치 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둔화된 회복세에 주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경기회복 둔화는 중국 경제가 대유행 이전보다 정책 지원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는 부양책 회수를 고민하는 다른 국가들을 향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V자 회복' 멈춘 중국... 한국경제 '경고등'

중국의 경기회복세가 급격히 둔화했다.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에 국내 산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4면

중국발 글로벌 경기 하락세가 촉발될 경우 전 업종에 걸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 경기회복이 중국의 둔화를 기점으로 꺾일 수 있다는 불안도

2Q 성장률 7.9%, 예상치 밀돌아

'역대 최고' 전분기 대비 반토막

"부양책 중단 고민 주요국에 경고"

고조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2분기 국내총

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7.9%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집계 전문가 예상치(8.0%)와 로이터통신 전망치(8.1%)를 모두 밀도는 성적이다. 1993년 분기별 GDP 집계 이후 최고 성장인 18.3%를 기록한 1분기와 비교해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했다.

앞서 중국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

치로 '6% 이상'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목표치 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둔화된 회복세에 주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경기회복 둔화는 중국 경제가 대유행 이전보다 정책 지원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는 부양책 회수를 고민하는 다른 국가들을 향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67 With Green YEARS



## 탄소와 싸우는 기업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탄소 감축을 위한 기업 금융지원, KDB산업은행이 함께 합니다

### KDB탄소스프레드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탄소 감축 및 저탄소 생태계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총 운용규모 5조원 이내 금리우대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평가기준 등에 따라 최대 연1.0%p, 한도 소진 시까지)

# “하반기 주식 수익률 눈높이 15~20%로 낮춰야”

## 코로나 시대 성공 투자법

코로나19로 주식 시장이 뜨거워지자 동학 개미들이 몰려들었다. 출렁이는 주가에 개미들은 자신이 들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내려갈까 불안한 밤을 지새웠다.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코앞을 분간하기 힘든 주식 시장에서 투자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 같은 조언들이 이어졌다.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과 오건영 신한은행 IPS(Investment Product Service) 기획부 부부장은 15일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빌딩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금융대전-로그인머니'에 참석해 코로나19 시대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주식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가 유망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했다.

◇하반기에도 '주식'...수익률 눈높이는 낮춰야 문남중 수석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높이는 재정·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기업 이익 증가 흐름이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올 하반기엔 호재와 악재가 번갈아 나타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주식은 오를 때 사는 것이 아닌 떨어질 때 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증시 투자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성으로 오른 주식이기엔 15~20% 상승폭을 목표로 잡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S&P

##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원

美 증시 과열 단정짓기 어려워  
S&P500 올해 9.9% 상승 예상  
통화정책 정상화 악영향 없을 것

## 오건영 신한은행 IPS 부부장

리스크 해소 위해 적극 분산투자  
한국 국채 매력적인 투자 대상  
금, 안전자산으로 보긴 어려워

500은 9.9% 오를 것으로 봤다. 조지 부시 2세,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등 3명의 미국 대통령 임기 1년차 평균 수익률이 9.9%라는 이유에서였다.

문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올해 3분기 중 S&P500이 4420포인트(P)로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시는 주춤하지만 계속 보유해야 한다”며 “미국과 다른 나라의 차이점은 코로나19 백신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코로나19를 타 국가보다 먼저 극복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예측했다.

미국 증시가 현재 과열화된 것이 아니냐는



문남중(왼쪽) 대신증권 수석연구원과 오건영 신한은행 IPS 부부장이 '제8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각각 글로벌 증시전망과 자본시장 전망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우려에 대해서는 단정짓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우려들은 지난 3월 대비 이번 달 시가총액이 95.3% 증가하면서 불거졌다. 문 수석연구원은 미국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봤을 때 과열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현재 이 비율은 206.3%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151.2%)보다는 높은 수치다. 그는 “통화 긴축은 알아둬야 하는 변수”라며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가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올해 8.4%, 내년 5.6%다. 그는 백신 접종 범위의 확대와 고용 시장이 개선되면서 서비스 업을 필두로 하는 소비 시장의 회복을 예

상했다. 실제 중국의 지난 1분기 소비는 2019년까지 회복된 상태.

◇한탕주의 경계...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 오건영 부부장은 “분산투자가 아닌 한쪽으로 쏠리는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부부장은 인기 유튜브 ‘삼프로TV-경제의 신과 함께’에 출연, 한탕주의를 경계하고 분산 포트폴리오로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코로나19의 금융 시장 전이를 최대한 차단해 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통화와 재정의 쌍끌이 부양책은 코로나19에 신음하던 금융 시장에 활기를 제공하는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도 연준의 무제한 양적완화

는 그간 금융 위기의 레벨을 크게 상회한다고 분석했다. 오 부부장은 “미 연방정부의 부채 역시 강한 재정 정책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자산 가격의 하락은 투자의 기회였음을 금융 위기 이후 학습해 왔다”며 “예금으로 자산을 모으는 건 답이 없다고 생각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조망했다.

상존하고 있는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분산 투자의 종류는 △자산 분산(주식, 채권, 원자재 등으로 분산) △지역 분산(다양한 종목, 지역으로 분산) △통화 분산 △시점 분산 등 4가지다. 오 부부장은 “글로벌 리스크 해소 국면에서 이머징 국가들은 주식·채권의 동반 약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은 채권 시장이 오히려 안전자산 성향을 나타낸다”며 “다른 통화와 비교할 때 한국 원화가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만큼, 한국 국채는 매력적인 분산 투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과 달러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그는 “70년대 이후 미국의 성장과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 등의 요인으로 금 가격은 장기 부진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가와 동반 약세를 보이고, 특히 뉴욕증시가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던 2015년 당시 글로벌 주식 시장이 부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을 안전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문수빈 기자 bean@·박소은 기자 gogumee@

# “싸게 사는 게 중요...차익 계산보다 현금흐름 좋은 자산에 투자”

## ‘파이어족’ 이고은의 전략 현금흐름 꾸준히 늘어나면 언제 팔까 고민할 필요없어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다 파이어족(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시기에 은퇴하는 사람)이 된 이고은(사진) 스페이스봄 대표는 저평가된 자산을 사서 현금흐름을 일으키고 보유하는 것을 좋은 투자라고 정의했다. 모두가 꿈꾸는 경제적·시간적 자유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자산 규모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현금흐름에 집중된 투자 원칙을 세우고 장기적이고 명확한 투자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15일 비대면 행사로 진행된 '제8회 대한민국 금융대전-로그인머니'에서 '현금흐름 로그인' 강연을 통해 좋은 투자에 대한 정의부터 재정립했다. 그는

“투자에 대해 많은 사람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투자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투자의 본질은 자산을 늘리는 모든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은 흔하게 생각하는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포함된다”며 “돈과 시간 자산을 늘려가는 행위가 투자라고 생각하며, 이미 우리는 모두 투자자”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투자를 통해 경제와 시간의 자유를 얻으려는 이들에게 ‘현금흐름’과 ‘레버리지’라는 원칙을 통해 투

자 자산을 결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자산 평가를 생각하면 가격 변동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좋은 투자를 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성과가 좋기 힘들다”며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현금흐름이 나오는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한가를 보면 좀더 쉽게 저평가 여부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강남 신축 아파트라는 화려하고 비싼 자산을 가졌더라도 이에 걸맞은 현금흐름이 없으면 자유로울 수 없다”며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투자는 내 시간은 적게 쓰고, 현금에 최대한 많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려고 고군분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정된 투자금을 최대한 잘 효율적으로 굴려야 하기 때문에 자본과 시간 레버리지 활용은 필수”라며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투자 수익률이 극대화

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현금흐름과 레버리지에 입각한 원칙을 통해 실전에서 투자한 △회폐형(적금, 달러, 암호자산 등) △부동산형(오피스텔 분양, 전세 레버리지 등) △회사형(직장인, 자영업, 해외주식) △하이브리드·파생형(해외음선, 리츠(REITS) 등) 자산을 공개했다. 그는 “자산군이 다양해 보이지만 똑같은 투자 원칙을 여러 자산에 적용했다”며 “원칙에 따라서 꾸준히 실행하면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이 대표는 좋은 투자가 되기 위한 자산 가치의 평가를 강조하며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싸게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매도했을 때 차익을 계산하는 것보다 보유하는 동안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계산한 투자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찾는 것”이라며 “또, 좋

은 자산을 적절히 레버리지 활용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배당주 중 ‘존슨앤존슨’의 사례로 가치평가 방법을 공개했다. 그는 “25년 이상 전년도 대비 배당을 계속해 늘린 배당귀족 중 존슨앤존슨을 투자하면 분기마다 배당을 통한 현금흐름이 나오고 시간도 들지 않는다”며 “장기간 투자했을 경우 IRR(연환산내재수익률)은 더욱 올라가 10년 후 투자수익률은 세후 약 9%, 20년 후 9.8%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기별로 2~3분만 투자하면 10%에 가까운 투자치를 찾는 것”이라며 “제 투자 원칙으로는 매수 시점에 가치가 저평가돼 있지만 보면 현금흐름이 꾸준히 증액돼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자산을 언제 팔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마음이 편한 투자”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멘토님이 사회초년생이라면?” 실시간 채팅창 질문 쏟아져

## 비대면 행사 이모저모

“멘토님은 사회초년생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투자하실 건가요?”, “멘토님은 퇴사한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부부가 경제관념을 같이 높이기 위해선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15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제8회 대한민국 금융대전-2022, 로그인 머니'에서 댓글창을 장식했던 질문들이다. 비대면으로 진행돼 수천여 명의 시청자들이 손을 드는 대신 댓글로 궁금증을 표출한 것이다. 이날 금융대전에는 유튜브 빠송(김학렬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 부동산조사연구소장),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원, 유튜브 주니맘·주니맘, 이고은 스페이스봄 대표, 정선용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의 작가, 오건영 신한은행 IPS 기획부 부부장 등이 멘토로 나섰다.

MZ세대의 이목을 끈 질문은 '사회초년생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투자할 거냐'는 댓글이었다. 현금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투자하는 방법을 강요한 이 대표는 “종잡돈 1000만 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정도 규모의 종잡돈이어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퇴근 후 시간, 주말 등을 활용해 또 다른 경험을 쌓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마음먹고 시간 자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답에 시청자들은 ‘투자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 같다’는 글을 올리며 댓글로 멘토와 소통했다.

주식 시장 활황 속 진행된 문 수석연구원의 ‘글로벌 증시 전망’은 투자자들을 주목시켰다. 그가 IT, 헬스케어, 소비재,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자 시청자들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라며 멘토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문 수석연구원은 응원에 힘입어 미국과 중국의 경기회복세를 전망하며 하반기 투자 시 알아둬야 할 변수로 △물가와 금리 △통화 긴축 △미·중 갈등 등 3가지를 지목했다. 그는 “투자는 스포츠와 다르게 나이가 들수록 더욱 현명한 방법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청자들에게 투자 비



유튜브 생중계 채팅창을 통해 시청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법을 전수했다.

강연 중간중간에는 MC가 금융 관련 퀴즈를 내고 시청자들이 댓글을 통해 정답을 말하는 이벤트 퀴즈가 진행됐다. 비대면으

로 진행돼 먼저 정답 댓글을 단 3명만 경품을 받을 수 있었다. 퀴즈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소득크레마스(연금 개시 전까지 소득 없이 지내는 기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등에 대한 내용이 문제로 출제됐다. 시청자들의 정답으로 댓글 창은 빠르게 올라갔다. 금융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이 모여 정답은 시간 싸움이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였지만 열기는 오프라인 못지않았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오프라인처럼 시청자가 질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멘토로 나선 빠송은 강연 후 “(비대면이라) 사람들과 눈 마주치는 게 없어 답답하긴 했지만 실시간 채팅으로 해소했다”며 “온라인으로 진행돼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강연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문수빈 기자 bean@

# “광역교통망 확대 구역 선점, 내집마련이면 지금 사야”

김학렬(빠송) 스마트튜브 경제아카데미 부동산연구소장

삼성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오피스텔·꼬마빌딩 사도 돼 정부 규제에 공급 턱없이 부족 임대차법 ‘전세품귀 현상’ 불러



김학렬(빠송·사진) 스마트튜브 경제아카데미 부동산연구소장은 “기다려도 내가 희망하는 아파트는 하락하기 어렵다”며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광역 교통망 확대 공사 구역을 선점하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15일 비대면 행사로 진행된 ‘제8회 대한민국 금융대전-2022, 로그인 머니’에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분간 지방 투자는 장기보다는 단기로 하라”며 “비아파트 투자도 시세 차익이 보이지 않으면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대기 수요층이 늘 존재하는 곳이 수요가 많다. 내 집 마련이 목적인 분은 지금 매수하고, 투자 목적이라면 현재 어려운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장 강한 규제 지역은 삼성동, 대치동과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며 “이 지역들은 오피스텔, 상가, 꼬마빌딩 아무거나 사도 된다. 너무 비싸다면 경기도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다. (정부 규제에서) 역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 있는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수요보다 공급이 적다는 얘기다. 김 소장은 “문정부에선 지난 4년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폈지만, 어떤 규제를 하더라도 시세는 계속 올랐다”며 “대출을 억제하다 보니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본 건 오히려 서민이다”라고 진단했다. 현금 부자한테는 득이 되고, 집이 필요하거나 정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계층에는 해가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는 올 초 들어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대책으로 바꿨다. 2월 4일에 발표했던 ‘3080플러스’ 대책이 그것이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도 크게 공급이 확대됐단 느낌이 없다”며 “결국 공급 확대를 하고자 했던 정부의 정책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의 남은 1년 동안에도 구

체화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수요층 입장인 무주택자로서는 현재 희망하는 지역, 아파트 단지에 임차로 가거나 자가로 가는데, 문제는 물건이 없다는 것”이라며 “입주 물량이 적고 규제정책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전세 물건이 줄어드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자가 거주자들한테 실제 거주의무를 강요해 자가 주인들이 입주하는 경우다. 임대차입법 때문에 기존의 세입자들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재계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이사하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서 못 가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는 “전세 시장은 회전이 돼야 하는데 사이클이 막히다 보니 시장이 죽었다”며 “인기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도 인천으로 전세 물건을 찾으며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결국 고통받고 있는 계층은 1주택자”라고 총평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낸다”며 “세금을 내고 나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야 하는데, 통상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려 한다. 하지만 세금 때문에 저렴한 신축이나 하급 입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 정부가 과거에 재건축시장을 오판했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현 정부는 재건축시장을)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산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집이 있는 사람이 재건축 집을 사는 건 투자보다 실거주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실거주 요건 목적으로 산다 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1주택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청약도 할 수 없게 됐다.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라고 일갈했다. 서지연 기자 sij@

## “의식주 걱정없는 10대, 재테크 도전 적기”

주식투자 중학생 주니맨 권준

7세 때 미니카 팔아 600만원 벌어서 적금 2600만원 개 1500만원 수익



유튜버 권준(주니맨·14·사진) 군은 “10대라고 해서 돈을 못 벌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부모님이 의식주를 모두 해결해 주시니 주식하기 오히려 가장 좋은 나이”라고 강조했다.

권 군은 비대면 행사로 진행된 ‘제8회 대한민국 금융대전-2022, 로그인 머니’에서 재린이(재테크+어린이)에게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군은 어린 나이에 주식 투자로 1년 만에 1500만 원의 수익을 내 유명해졌다. 그의 평균 수익률은 51%. 일찌감치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부모님의 덕이 컸다. 그는 “일곱 살 때 미니카를 갖

고 놀다가 ‘미니카를 직접 팔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부모님은 사업 계획서를 써오라고 하였고, 이후 직접 도매로 미니카를 사왔다”고 말했다. 이렇게 번 순수익은 총 600만 원이 넘는다. 이 중 15만 원을 투자해 지판기 음료 판매를 시작했고, 자리에 없어도 알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권 군은 “집콕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경제 뉴스에서 ‘주식 시장에 있어 10년에 한번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을 우연

히 접했다”며 “2600만 원이 쌓여 있던 적금을 해지해 삼성전자와 카카오에 투자했는데, 반쯤까지 시간이 걸린다 해서 기다렸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중 10대 경제 유튜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유튜브 채널 ‘주니맨’이 세상에 나온 배경이다.

권 군은 “삼성전자와 카카오에 투자했던 주식의 수익률이 25%를 넘었다”며 “구독자 수가 5명 정도였는데 만 명까지 순식간에 늘기 시작했다. 이후 방송 출연 등 다양한 인터뷰를 했고, 주식을 하며 가장 만나보고 싶었던 존리 대표님을 만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1억 원을, 19세 때에는 2억 원을 모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후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 주니맨(이은주)은 “준이가 태어나면서 업장에서 이 유식을 먹이면서 손님을 맞았다”며 “그러다 보니 아이도 자연스럽게 장사를 배웠다”고 말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 “직장인 네 가지 착각 벗어나야 파이어족 돼”

‘아들아 돈 공부...’ 정선용 작가

“월급 아닌 고정 소득 있어야”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의 저자로 유명한 정선용(사진) 작가가 “월급이 아닌 고정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보다 중요한 것이 ‘고정 소득’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작가는 15일 비대면 행사로 진행된 ‘제8회 대한민국 금융대전-2022, 로그인 머니’에서 “빨리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면, 직장인들이 하는 네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네 가지 착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월급이 언제까지고 나올 거라는 착각 △회사의 명함이 내 사회적 지위라는 착각 △회사의 인맥이 내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착각 △나에게 이 회사가 평생직장이라는 착각이다. 이 모든 건 퇴직하는 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정 작가는 월급이 아닌 고정 소득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명함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사회적 지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

언했다. 회사의 인맥이 아닌 자기만의 좁고 깊은 인적 네트워크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25년간 유통업계에 종사하며 롯데마트 가정간편식 부문장(상무)까지 지냈지만, 은퇴 후 작가로서 인맥과 학교에서 인맥을 만들고 있다.

정 작가는 “직장에선 근로소득은 믿고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년이 있고, 임금상승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엔 근로소득으로 시작하지만, 늦지 않게 사업소득 또는 자본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돈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 개인으로서 돈과 경제의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지연 기자 sij@

**동아오즈카**

비타민C 220mg

용성비타민P

비타민 B2

다섯가지 비타민과 아미노산 탄산으로

순식간에 생기충전

비타민 B3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B1

비타민 B5

비타민 B7

비타민 B9

비타민 B11

비타민 B13

비타민 B14

비타민 B15

비타민 B16

비타민 B17

비타민 B18

비타민 B19

비타민 B20

비타민 B21

비타민 B22

비타민 B23

비타민 B24

비타민 B25

비타민 B26

비타민 B27

비타민 B28

비타민 B29

비타민 B30

비타민 B31

비타민 B32

비타민 B33

비타민 B34

비타민 B35

비타민 B36

비타민 B37

비타민 B38

비타민 B39

비타민 B40

비타민 B41

비타민 B42

비타민 B43

비타민 B44

비타민 B45

비타민 B46

비타민 B47

비타민 B48

비타민 B49

비타민 B50

비타민 B51

비타민 B52

비타민 B53

비타민 B54

비타민 B55

비타민 B56

비타민 B57

비타민 B58

비타민 B59

비타민 B60

비타민 B61

비타민 B62

비타민 B63

비타민 B64

비타민 B65

비타민 B66

비타민 B67

비타민 B68

비타민 B69

비타민 B70

비타민 B71

비타민 B72

비타민 B73

비타민 B74

비타민 B75

비타민 B76

비타민 B77

비타민 B78

비타민 B79

비타민 B80

비타민 B81

비타민 B82

비타민 B83

비타민 B84

비타민 B85

비타민 B86

비타민 B87

비타민 B88

비타민 B89

비타민 B90

비타민 B91

비타민 B92

비타민 B93

비타민 B94

비타민 B95

비타민 B96

비타민 B97

비타민 B98

비타민 B99

비타민 B100

비타민 B101

비타민 B102

비타민 B103

비타민 B104

비타민 B105

비타민 B106

비타민 B107

비타민 B108

비타민 B109

비타민 B110

비타민 B111

비타민 B112

비타민 B113

비타민 B114

비타민 B115

비타민 B116

비타민 B117

비타민 B118

비타민 B119

비타민 B120

비타민 B121

비타민 B122

비타민 B123

비타민 B124

비타민 B125

비타민 B126

비타민 B127

비타민 B128

비타민 B129

비타민 B130

비타민 B131

비타민 B132

비타민 B133

비타민 B134

비타민 B135

비타민 B136

비타민 B137

비타민 B138

비타민 B139

비타민 B140

비타민 B141

비타민 B142

비타민 B143

비타민 B144

비타민 B145

비타민 B146

비타민 B147

비타민 B148

비타민 B149

비타민 B150

비타민 B151

비타민 B152

비타민 B153

비타민 B154

비타민 B155

비타민 B156

비타민 B157

비타민 B158

비타민 B159

비타민 B160

비타민 B161

비타민 B162

비타민 B163

비타민 B164

비타민 B165

비타민 B166

비타민 B167

비타민 B168

비타민 B169

비타민 B170

비타민 B171

비타민 B172

비타민 B173

비타민 B174

비타민 B175

비타민 B176

비타민 B177

비타민 B178

비타민 B179

비타민 B180

비타민 B181

비타민 B182

비타민 B183

비타민 B184

비타민 B185

비타민 B186

비타민 B187

비타민 B188

비타민 B189

비타민 B190

비타민 B191

비타민 B192

비타민 B193

비타민 B194

비타민 B195

비타민 B196

비타민 B197

비타민 B198

비타민 B199

비타민 B200

비타민 B201

비타민 B202

비타민 B203

비타민 B204

비타민 B205

비타민 B206

비타민 B207

비타민 B208

비타민 B209

비타민 B210

비타민 B211

비타민 B212

비타민 B213

비타민 B214

비타민 B215

비타민 B216

비타민 B217

비타민 B218

비타민 B219

비타민 B220

비타민 B221

비타민 B222

비타민 B223

비타민 B224

비타민 B225

비타민 B226

비타민 B227

비타민 B228

비타민 B229

비타민 B230

비타민 B231

비타민 B232

비타민 B233

비타민 B234

비타민 B235

비타민 B236

비타민 B237

비타민 B238

비타민 B239

비타민 B240

비타민 B241

비타민 B242

비타민 B243

비타민 B244

비타민 B245

비타민 B246

비타민 B247

비타민 B248

비타민 B249

비타민 B250

비타민 B251

비타민 B252

비타민 B253

비타민 B254

비타민 B255

비타민 B256

비타민 B257

비타민 B258

비타민 B259

비타민 B260

비타민 B261

비타민 B262

비타민 B263

비타민 B264

비타민 B265

비타민 B266

비타민 B267

비타민 B268

비타민 B269

비타민 B270

비타민 B271

비타민 B272

비타민 B273

비타민 B274

비타민 B275

비타민 B276

비타민 B277

비타민 B278

비타민 B279

비타민 B280

비타민 B281

비타민 B282

비타민 B283

비타민 B284

비타민 B285

비타민 B286

비타민 B287

비타민 B288

비타민 B289

비타민 B290

비타민 B291

비타민 B292

비타민 B293

비타민 B294

비타민 B295

비타민 B296

비타민 B297

비타민 B298

비타민 B299

비타민 B300

비타민 B301

비타민 B302

비타민 B303

비타민 B304

비타민 B305

비타민 B306

비타민 B307

비타민 B308

비타민 B309

비타민 B310

비타민 B311

비타민 B312

비타민 B313

비타민 B314

비타민 B315

비타민 B316

비타민 B317

비타민 B318

비타민 B319

비타민 B320

비타민 B321

비타민 B322

비타민 B323

비타민 B324

비타민 B325

비타민 B326

비타민 B327

비타민 B328

비타민 B329

비타민 B330

비타민 B331

비타민 B332

비타민 B333

비타민 B334

비타민 B335

비타민 B336

비타민 B337

비타민 B338

비타민 B339

비타민 B340

비타민 B341

비타민 B342

비타민 B343

비타민 B344

비타민 B345

비타민 B346

비타민 B347

비타민 B348

비타민 B349

비타민 B350

비타민 B351

비타민 B352

비타민 B353

비타민 B354

비타민 B355

비타민 B356

비타민 B357

비타민 B358

비타민 B359

비타민 B360

비타민 B361

비타민 B362

비타민 B363

비타민 B364

비타민 B365

비타민 B366

비타민 B367

비타민 B368

비타민 B369

비타민 B370

비타민 B371

비타민 B372

비타민 B373

비타민 B374

비타민 B375

비타민 B376

비타민 B377

비타민 B378

비타민 B379

비타민 B380

비타민 B381

비타민 B382

비타민 B383

비타민 B384

비타민 B385

비타민 B386

비타민 B387

비타민 B388

비타민 B389

비타민 B390

비타민 B391

비타민 B392

비타민 B393

비타민 B394

비타민 B395

비타민 B396

비타민 B397

비타민 B398

비타민 B399

비타민 B400

비타민 B401

비타민 B402

비타민 B403

비타민 B404

비타민 B405

비타민 B406

비타민 B407

비타민 B408

비타민 B409

비타민 B410

비타민 B411

비타민 B412

비타민 B413

비타민 B414

비타민 B415

비타민 B416

비타민 B417

비타민 B418

비타민 B419

비타민 B420

비타민 B421

비타민 B422

비타민 B423

비타민 B424

비타민 B425

비타민 B426

비타민 B427

비타민 B428

비타민 B429

비타민 B430

비타민 B431

비타민 B432

비타민 B433

비타민 B434

비타민 B435

비타민 B436

비타민 B437

비타민 B438

비타민 B439

비타민 B440

비타민 B441

비타민 B442

비타민 B443

비타민 B444

비타민 B445

비타민 B446

비타민 B447

비타민 B448

비타민 B449

비타민 B450

비타민 B451

비타민 B452

비타민 B453

비타민 B454

비타민 B455

비타민 B456

비타민 B457

비타민 B458

비타민 B459

비타민 B460

비타민 B461

비타민 B462

비타민 B463

비타민 B464

비타민 B465

비타민 B466

비타민 B467

비타민 B468

비타민 B469

비타민 B470

비타민 B471

비타민 B472

비타민 B473

비타민 B474

비타민 B475

비타민 B476

비타민 B477

비타민 B478

비타민 B479

비타민 B480

비타민 B481

비타민 B482

비타민 B483

비타민 B484

비타민 B485

비타민 B486

비타민 B487

비타민 B488

비타민 B489

비타민 B490

비타민 B491

비타민 B492

비타민 B493

비타민 B494

비타민 B495

비타민 B496

비타민 B497

비타민 B498

비타민 B499

비타민 B500

비타민 B501

비타민 B502

비타민 B503

비타민 B504

비타민 B505

비타민 B506

비타민 B507

비타민 B508

비타민 B509

비타민 B510

비타민 B511

비타민 B512

비타민 B513

비타민 B514

비타민 B515

비타민 B516

비타민 B517

비타민 B518

비타민 B519

비타민 B520

비타민 B521

비타민 B522

비타민 B523

비타민 B524

비타민 B525

비타민 B526

비타민 B527

비타민 B528

비타민 B529

비타민 B530

비타민 B531

비타민 B532

비타민 B533

비타민 B534

비타민 B535

비타민 B536

비타민 B537

비타민 B538

비타민 B539

비타민 B540

비타민 B541

비타민 B542

비타민 B543

비타민 B544

비타민 B545

비타민 B546

비타민 B547

비타민 B548

비타민 B549

비타민 B550

비타민 B551

비타민 B552

비타민 B553

비타민 B554

비타민 B555

비타민 B556

비타민 B557

비타민 B558

비타민 B559

비타민 B560

비타민 B561

비타민 B562

비타민 B563

비타민 B564

비타민 B565

비타민 B566

비타민 B567

비타민 B568

비타민 B569

비타민 B570

비타민 B571

비타민 B572

비타민 B573

비타민 B574

비타민 B575

비타민 B576

비타민 B577

비타민 B578

비타민 B579

비타민 B580

비타민 B581

비타민 B582

비타민 B583

비타민 B584

비타민 B585

비타민 B586

비타민 B587

비타민 B588

비타민 B589

비타민 B590

비타민 B591

비타민 B592

비타민 B593

비타민 B594

비타민 B595

비타민 B596

비타민 B597

비타민 B598

비타민 B599

비타민 B600

비타민 B601

비타민 B602

비타민 B603

비타민 B604

비타민 B605

비타민 B606

비타민 B607

비타민 B608

비타민 B609

비타민 B610

비타민 B611

비타민 B612

비타민 B613

비타민 B614

비타민 B615

비타민 B616

비타민 B617

비타민 B618

비타민 B619

비타민 B620

비타민 B621

비타민 B622

비타민 B623

비타민 B624

비타민 B625

비타민 B626

비타민 B627

비타민 B628

비타민 B629

비타민 B630

비타민 B631

비타민 B632

비타민 B633

비타민 B634

비타민 B635

비타민 B636

비타민 B637

비타민 B638

비타민 B639

비타민 B640

비타민 B641

비타민 B642

비타민 B643

비타민 B644

비타민 B645

비타민 B646

비타민 B647

비타민 B648

비타민 B649

비타민 B650

비타민 B651

비타민 B652

비타민 B653

비타민 B654

비타민 B655

비타민 B656

비타민 B657

비타민 B658

비타민 B659

비타민 B660

비타민 B661

비타민 B662

비타민 B663

비타민 B664

비타민 B665

비타민 B666

비타민 B667

비타민 B668

비타민 B669

비타민 B670

비타민 B671

비타민 B672

비타민 B673

비타민 B674

비타민 B675

비타민 B676

비타민 B677

비타민 B678

비타민 B679

비타민 B680

비타민 B681

비타민 B682

비타민 B683

비타민 B684

비타민 B685

비타민 B686

비타민 B687

비타민 B688

비타민 B689

비타민 B690

비타민 B691

비타민 B692

비타민 B693

비타민 B694

비타민 B695

비타민 B696

비타민 B697

비타민 B698

비타민 B699

비타민 B700

비타민 B701

비타민 B702

비타민 B703

비타민 B704

비타민 B705

비타민 B706

비타민 B707

비타민 B708

비타민 B709

비타민 B710

비타민 B711

비타민 B712

비타민 B713

비타민 B714

비타민 B715

비타민 B716

비타민 B717

비타민 B718

비타민 B719

비타민 B720

비타민 B721

비타민 B722

비타민 B723

비타민 B724

비타민 B725

비타민 B726

비타민 B727

비타민 B728

비타민 B729

비타민 B730

비타민 B731

비타민 B732

비타민 B733

비타민 B734

비타민 B735

비타민 B736

비타민 B737

비타민 B738

비타민 B739

비타민 B740

비타민 B741

비타민 B742

비타민 B743

비타민 B744

비타민 B745

비타민 B746

비타민 B747

비타민 B748

비타민 B749

비타민 B

# 33개월 만에 금리인상 소수의견 “10월·내년 2월 유력”

## 한은, 기준금리 동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경제가 원활히 돌아간다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더 확고히 나타냈다. 다음 금통위가 있는 8월이나, 그다음 금통위가 있는 10월이나 하는 시기 문제만 남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했다. 다만, 고승범 위원이 25bp(1bp=0.01%p) 인상할 것을 주장해 1년 2개월째 이어지던 만장일치 행진에 제동을 걸었다. 금리인상 소수의견은 2018년 10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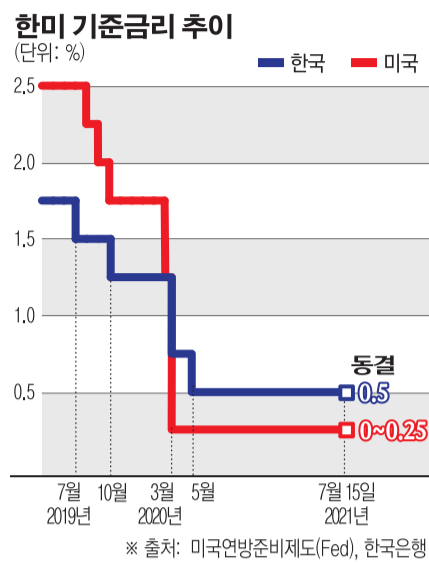
향후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통화정책 방향에선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이란 문구가 1년 5개월 만에 삽입됐다. 이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경기회복세와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다음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지 아닌지를 논의할 때”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완화 조정’ 정책 방향 문구 삽입 이주열 “코로나 방역 상황 따라 경제 안정 위해 금리 정상화 필요” 8월·10월 금통위 인상 시기 촉박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 불균형 누적이 무거워졌다. 코로나19 확산이 금리인상 시기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방역조치와 함께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이 경기회복세를 훼손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5월 한은이 전망한 올 4% 경제성장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봤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물가는 기존 전망치 1.8%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 문제를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통화정책 정상화를 통해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종전보다 커졌다. 대부분 위원이 금융 불균형 해소에 가



장 역점을 뒤야 할 때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코로나 상황이 경기 회복세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면 금리 정상화가 경제에 장기적인 안정을 갖추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8월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확실히 매파적(통화긴축적)이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월말 열리는 8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이 가능해 보인다. 그때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은행

지도 (신규 확진자 수가) 적지 않게 나온다면 10월로 미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일 강조한 것은 금융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경제 주체들의 과도한 수익 추구 행위와 과도한 부채 수준에 시급히 (금리인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도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필요도 있어 8월엔 소수의견이 2명 정도로 늘고, 10월에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의 경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주택가격도 임대료 기준이나 과거 장기평균치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이 한정돼 있는 점, 피해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이 있는 점 등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피해를 본 계층에 중점 지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 “중국발 글로벌 경제 위축이 더 걱정”

# 韓산업 ‘도미노 악재’ 우려

## 반도체, 중세트제품 생산 감소 자동차, 현지시장 재편 가능성 “하반기 개선 전망” 신중론도

중국이 15일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7.9%)을 발표하자,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산업계는 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직접 영향보다는 글로벌 경제 위축을 더 걱정하고 있다. 중국발 경제 파급효과가 세계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개별 산업 섹터의 영향이 더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박단소 산업인 반도체는 중국의 세트 제품 생산 감소에 따라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 당장 수익 창출이 어려운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가 위축되고, 결국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조선, 철강, 기계와 같은 중후장대 산업도 중국발 ‘경제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당장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경기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 글로벌 선박 발주량에 영향을 준다. 발주량 감소는 조선업계에 좋지 않은 소식이다”라고 진단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철강 생산량이 줄면 공급량이 줄어 철강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어서 우리나라 철강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기가 악화해 남은 철강 재고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면 철강 제품 가격이 하락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항공업은 현재 국제선을 제대로 띄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중국 경기보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경기 둔화는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인 항공업황 회복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자동차 업계도 국내 기업의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다.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운영위원장은 “중국의 경기 둔화가 지속하면 가격 경쟁력을 가진 중국 토종 완성차 업체들이 판매를 늘리면서 시장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한국 기업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아직 중국 경기가 둔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전보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전략시장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2분기 GDP는 1분기에 비하면 10%포인트 떨어졌는데, 올 1분기에 코로나19 기저효과로 18.3%나 성장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여전히 시장에서는 중국이 ‘V자’ 반등한다고 바라보고 있다. 이 정도 수치로 우리 산업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역협력팀장은 “1분기에 중국이 코로나에서 가장 빨리 회복하면서 워낙 좋았다. 2분기는 전 세계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다소 주춤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는 백신 접종이 확산하면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미·중 영향으로 2분기 중국 수출이 줄게 되면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기회에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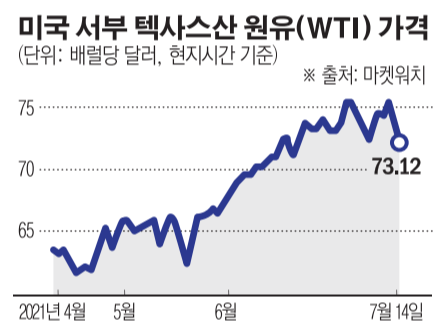
권태성 기자 tskwon@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사우디-UAE, 산유량 갈등 봉합... 국제유가 2.8% ‘뚝’

## UAE, 365만 배럴 증산 잠정 합의 OPEC+ 등 최종 승인 남아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다. 공급 차질 불안이 완화한 영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와 UAE가 협조 감소에 합의했으며 궁극적으로 UAE의 산유량을 늘리는 절충안이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번 합의는 잠정적이며 OPEC과 기타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OPEC+는 당초 내년 4월까지인 감소기한을 그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대신 하루 40만 배럴을 시장에 더 풀기로 했었다. 그러나 자국의 생산 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됐다며 불만을 터뜨린 UAE가 합의를 거부하면서 시장에 일대 혼란이 연출됐다.

고대영 기자 kodae0@

앞서 UAE는 하루 최대 산유량 규모를 기존 320만 배럴에서 380만 배럴로 늘릴 것을 요청했지만, 회원국들이 반대했다.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내년 4월부터 365만 배럴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소식에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2.12달러(2.8%) 하락한 배럴당 73.12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1.98달러(2.59%) 내린 배럴당 74.51달러로 집계됐다. 유가는 올해 상반기 중국 원유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다는 소식에 추가 하락 압박을 받았다. 중국 수입이 축소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 한경연 “韓, 투자역조 현상 심화... 조세 경쟁력 높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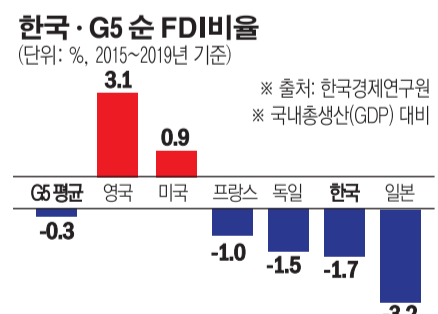
## 외투 유치 경쟁력 25개국 중 21위 “질적 악화로 국내고용 감소 우려”

우리나라의 외국인 국내직접투자(FDI)와 내국인 해외직접투자(ODI)와 관련된 양적·질적 지표가 주요국보다 크게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한국과 주요 5개국(G5·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FDI·ODI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 FDI 비율은 기간 중 평균 -1.7%로 G5 평균인 -0.3%보다 낮았다고 14일 밝혔다.

순 FDI 비율이란 FDI에서 ODI를 뺀 값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한국이 G5 국가들보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모보다 내국인의 해외 투자 규모가 더 큰 ‘투자 역조’ 현상이 더 심했다는 의미다.

한국과 G5의 순 FDI 비율 변화를 200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 FDI 비율은 -0.9%, -1.5%, -1.7% 등으로 투자 역조 현상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G5 평균은 같은 기간



-1.1%, -0.7%, -0.3% 등으로 개선됐다.

FDI와 ODI의 질적 평가를 위해 일종의 생산시설 투자인 ‘그린필드형 투자’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그린필드형 FDI가 직전 5년보다 16.8% 줄었지만 그린필드형 ODI는 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G5의 그린필드형 FDI는 31.6% 증가하고, 그린필드형 ODI는 2.5%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통상 그린필드형 투자는 공장 등 생산설비를 신설·확장하는 투자로 고용창출 등 경제적 기여가 높은 투자로 분류된다.

한경연 관계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생산시설 투자는 줄고 해외로 빠져 나가는 투자는 늘어났다”면서 “FDI·ODI의 질적 악화로 국내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AT커니가 조사한 FDI 신뢰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FDI 유치 경쟁력은 주요 25개국 중 21위에 그쳤다.

한경연이 FDI 신뢰지수 구성항목 중 중요도가 높은 5개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 한국과 G5 국가 간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인프라경쟁력과 혁신역량은 비교우위에 있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조세경쟁력 △규제경쟁력 △시장개방도는 비교열위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8~2020년) 평균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7.3%로, G5 평균(22.6%)보다 높아 기업의 조세 부담이 컸다. 전체 조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5.7%로, G5 평균(6.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한국과 G5의 규제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기업·투자 규제수준 역시 6개국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G5 등 주요국과 달리 FDI의 양적·질적 지표가 악화하면서 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조세·규제 경쟁력 제고 등으로 FDI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등 경제 모멘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 ‘성남 복정1’ 최대 관심, 신혼부부 물량 30% 최다

인천 계양 등 5곳에 4333가구 공급... 28일부터 접수  
토지보상 관건, 늦으면 ‘청약 난민’ 2년 연속 거주해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사전청약은 분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입주자를 미리 뽑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1차 사전청약 물량은 인천 계양신도시 1050가구, 남양주 진접2지구 1535가구, 성남 복정1지구 1026가구, 위례신도시 418가구, 의왕 청계2지구 304가구 등 총 4333가구다.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 계양신도시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A2블록에서 공공분양 709가구, A3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341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공급된다.

남양주시 진접2지구는 별내시·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를 지녔다. 공공분양(A1·B1블록) 1096가구, 신혼희망타운(A3·A4블록) 439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잡혔다.

성남시 복정1지구에서는 1026가구의 물량이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된다. 공공분양(A1블록) 583가구, 신혼희망타운(A2·A3블록) 443가구다. 이곳은 입지가 좋아 이번 사전청약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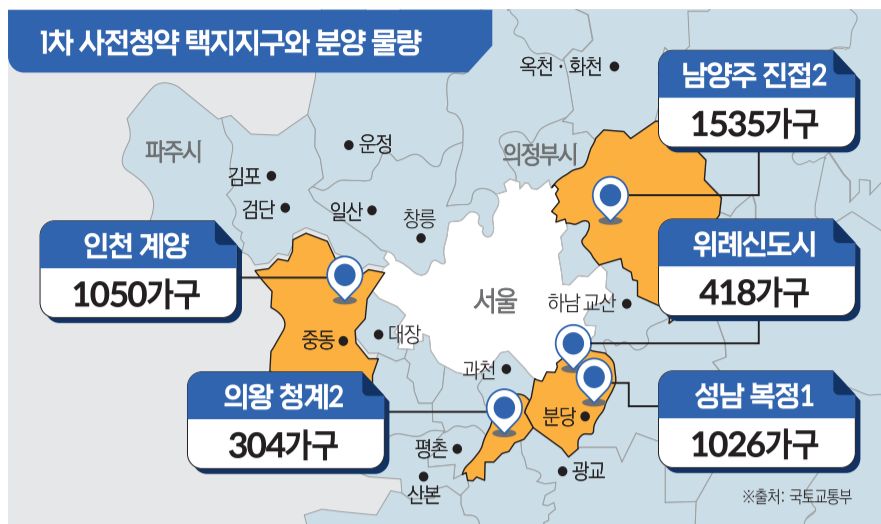
는 지역이다. 그만큼 분양가도 타 지구보다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추정한 분양가는 3.3㎡당 2400만~2600만 원이다. 이 경우 전용면적 59㎡형은 6억 7600만 원, 전용 55㎡형은 5억 5000만~6억 4000만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위례신도시에서는 신혼희망타운(A2·7블록) 41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도시 안에 자리 잡아 이미 구축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의왕 청계2지구에서도 신혼희망타운(A1블록) 304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이곳은 청계1지구와 연계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토지보상 안되면 ‘청약 난민’=사전청약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전청약을 통해 분청약을 거쳐 오는 2025년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건은 토지보상이다. 토지보상이 지연되면 분청약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전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입주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앞서 2010년 사전청약을 실시했던 하남시 갑일 지구와 사흥시 은계지구 등에서 토지보상이 발목을 잡으면서 분청약과 공사가 줄줄



이 지연되다가 10년 만인 지난해에야 입주가 시작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당시 ‘청약 난민’이라는 오명까지 얻으며 전세를 전전해야 했다.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여야 당첨 자격을 잃지 않아서다.

해당 지역 우선공급 물량에 사전청약을 신청할 경우 거주 요건 충족 조건을 잘 지켜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분청약 시점까

지만 충족되면 된다. 사전청약 때는 단순히 해당지역에 현재 거주 중이면 당첨될 수 있지만, 분청약 때까지 해당 지역 연속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의 15%만 일반공급=사전청약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 자격과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지만 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와 생애 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할당됐다.

◇28일부터 접수...9월 당첨자 발표=일반 공공분양은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청약 신청을 받는다. 8월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의 청약은 8월 6일부터 10일까지 받는다.

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청약 접수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 유형과 관계없이 9월 1일 발표된다. 이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11월께 최종 확정된다.

이재영 기자 lry0403@

## 3.3㎡당 인천 계양 1400만원·성남 복정1 2500만 원 주변 시세의 80%? ‘고분양가’ 논란

민간보다 비싼 곳도 ‘바가지 분양’

16일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시세보다 20~40% 싸게 분양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요자 사이에선 ‘바가지 분양’이란 말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5개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을 받는다. 지난해 사전청약 제도가 부활한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전청약이다. 사전청약 대상인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 1100가구도 포함됐다. 국토부와 LH는 연말까지 하남 교산, 남양주 대장,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사전청약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이 흥행하면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 매입 수요 일부를 흡수할 수 있어서다.

사전청약 흥행을 결정지을 관건은 적정 분양가 여부다. 국토부가 추산한 인천 계양신도시 분양가는 3.3㎡당(공급면적 기준) 약 1400만 원이다. 전용면적 59㎡형, 84㎡형 기준은 각각 3억5628만 원, 4억9387만 원이다.

청약 당첨자가 낼 실제 분양가는 내년 예정된 분청약 시점에 확정되지만, 분양가를 결정하는 택지비와 건축비 상승세를 고려할 때 이번에 제시된 분양가가 최저선이라고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청약 수요자 평가는 국토부 ‘자화자찬’과는 온도 차가 있다. 올 5월 계양지구 인근 인천 박촌동에서 분양한 ‘계양 하늘채 파크포레’는 3.3㎡당 1600만 원에 공급됐다.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

게 하는 제도) 미적용 단지임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계양지구 분양가와 15%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사전청약을 받는 다른 공공택지도 분양가가 비싸다는 평가를 받긴 마찬가지다. 경기 성남시 복정동·창곡동에 들어서는 복정1지구에선 전용 59㎡형 아파트가 6억 7616만 원에 분양된다. 공급면적 3.3㎡당 분양가가 2500만 원이 넘는다. 올해 초 창곡동에서 3.3㎡당 2260만 원에 분양한 민간 아파트인 ‘위례 자이 더 시티’보다 분양가가 비싸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새 아파트값이 비싸게 공급되면 기존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며 “정부는 분양가가 시세의 60~80%라고 강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배 가까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무주택자들에게는 턱없이 비싸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등에 공공택지에 토지임대주택(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것)을 공급해 분양가를 낮추라고 요구했다.

국토부 측은 “개발 시기나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젊은 층들은 이 가격도 높다고 말한다”면서도 “시세와 동떨어진다면 (지나친 분양 차익이 발생하는) 로또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인천 계양신도시는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라고 보지만 다른 택지지구의 분양가는 기존 주변 단지와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다”며 “분청약에서 분양가를 확정할 때 적정 수준에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 식후 3정으로 지키는 대사 건강

10년 동안 100만\* 고객이 선택한 녹차건강기능식품

# 메타그린 골드

한 번만 경험해보면 꾸준한 습관이 되는 메타그린 골드, 지난 10년 동안 100만\* 고객의 선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을 연구하여 설계된 녹차 카테킨이 체지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 가볍고 원활한 대사 리듬을 완성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식습관에 메타그린 골드를 더하세요.

\*2012년 출시부터 2021년 2월까지 메타그린 누적 구매 고객수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 바이탈뷰티

# 코로나 장기화에 흔들리는 'K방역망'

## '4차 유행' 이틀째 1600명대 여의도 증권사·국회 전수조사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600명대를 기록했다. 델타형(인도형)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수도권에 집중됐던 유행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 여의도의 모든 증권사 전 직원, 국회 전 직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가 실시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여름철 휴가 수요 증가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폭염에 따른 체력 고갈로 방역현장의 고동과 인력난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 관계자가 15일 더위를 식히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600명 늘어 누적 17만3511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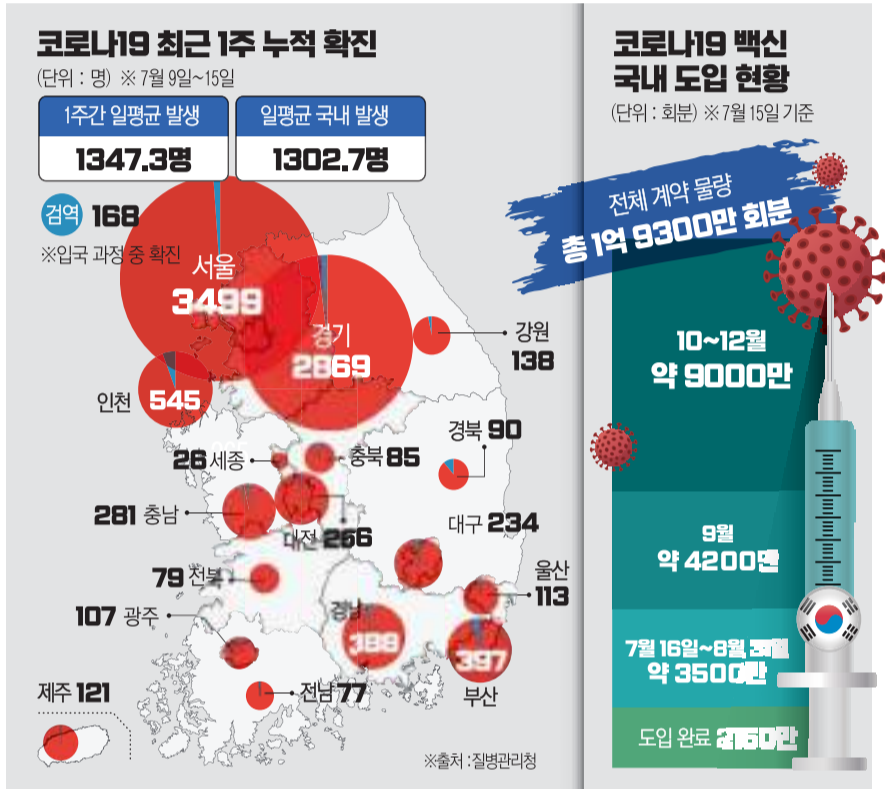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운동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국회 상주 인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위해 검사희망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① 방역인력 체력 고갈과 폭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웃도는 수도권에선 역학조사가 확진자 증가세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수도권 역학조사 지원을 위해 기존 군 367명, 경찰 80명에 더해 12일부터 군·경 200명을 추가 투입했다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1.22)를 고려하면, 일일 신규 확진자는 8월 중순 2331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역학조사 현장의 인력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폭염에 따른 의료인력의 체력 고갈도 문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대부분 옥외에 설치돼 있어 냉방이 어렵다. 진단검사 의료인력은 기온과 관계없이 방역복과 마스크를 착용한다. 지난해 여름에는 2차 대유행 이전까지 확진자 발생이 안정세를 이어갔으나, 올해엔 폭염철에 겹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선별진료소 등에 냉방장치 구비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는 응급처치 일 뿐이다. 당장 견고한 공공의료시스템 구축과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에 나서야한다.



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역에선 5명 이상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실제 수도권에선 5~11일 이동량이 전주보다 3.8% 줄었지만, 비수도권에선 4.3% 늘었다. 지자체별 비상한 대책이 요구된다.

추정된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유행 수요가 쏠리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는 20·30대를 중심으로 한 델타 변이 확산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4~10일 국내발생 중 델타 변이 검출률은 23.3%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26.5%다. 국내발생 확진자 4명 중 1명은 델타 변이에 감염된 셈이다. 델타 변이는 주로 20·30대에, 경로별로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세다.

이런 상황에 20·30대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8월 개시된다. 서둘러 백신을 확보, '방역우산'을 크고 넓게 드리워야 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③ 20·30 백신은 언제

비수도권에선 최근 유행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날 낮12시 기준으로 대전 유행업소(총 20명), 충남 천안시 유행주점(총 31명), 광주 서구 유행시설(총 8명), 제주 제주시 유행주점(총 14명)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수도권 20·30대 '원정 유행'의 결과로

세종=김지영 기자 jye@

## 국내외 봉쇄 풀고 마스크 의무화 해제한다는데 이탈리아 답아가는 한국 방역

### 현장에서

#### 유럽선 국민 고동 분담 방역 한국은 자영업자·방역인력만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취재차 7~11일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노마스크'였다.

이탈리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방역에 실패한 대표적인 국가다. 15일 14시(한국 시간) 기준 확진자는 427만5846명, 사망자는 12만7831명에 달한다. 최근까지도 출입국 제한과 더불어 대부분 지역에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비필수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했다.

현재 상황도 안정적으로 보긴 어렵다. 이날 신규 확진자만 2153명에 달하고,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를 계기로 대규모 이동·운집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 이탈리아는 국내외 봉쇄를 풀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실내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호텔·매장 등에서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돌아다닌다. 또다시 대유행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탈리아보다 상황이 안정

적인 독일에서 방역조치가 더 잘 작동하고 있었다. 확진자 수는 이탈리아와 큰 차이가 없지만, 1차 예방접종률이 60%를 넘어섰다. 그런데도 독일의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영업을 부분적으로만 재개했다. 입국 경유자 들렸던 프랑크푸르트에선 식품 소매점조차 매장 내 손님 수를 자체적으로 제한했다.

한국의 상황은 독일보다는 이탈리아에 가깝다.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기에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남은 건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국은 이탈리아보다 부정적이다. 이탈리아에선 방역조치 강화가 전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지만, 한국에선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본다. 이탈리아는 방역에 실패해도 권리를 누리는 쪽과 책임을 지는 쪽이 일치한다.

베네치아 거리를 지날 때 한 카페 주인이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다. "한국에서 왔다"고 답하자 "당신들 드디어 돌아오는 거냐"며 반색했다. 이에 "우리는 G20 회의 때문에 온 것"이라고 답하자 카페 주인은 이내 풀이 죽었다. 그나마 이탈리아의 자영업자들은 한국의 자영업자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자신들만 희생하는 건 아니니 말이다.

베네치아=김지영 기자 jye@

<55~59세>

## 50대 후반 백신접종 사전예약 '뒷문' 논란

### 예약하기 링크로 시스템 개시前 예약 오후 8시 열린 사전예약선 접속 장애 방대본 "이득 크지 않아...유효 판단"

만 55~59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재개된 14일 오후 8시 이전부터 사전예약 시스템에 우회 경로로 접속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8시 이후 신청자가 몰리면서 시스템 접속 장애가 발생한 상황에 '뒷문'이 존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우진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시스템관리팀장은 15일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예약 직전에 인덱스 페이지라고 시스템 보안이나 점검을 위한 시간을 1시간 반 정도 진행했다"며 "그 전에 웹사이트 주소

(URL)로 접속하게 되면 예약으로 가동되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예약을 우선 진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해 이런 식으로 예약된 경우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날 오후 7시 30분을 전후해 '백신 예약이 가능하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들이 안내한 URL 링크를 클릭하면 '예약하기' 페이지로 곧바로 연결됐다. 메인 페이지는 열려 있었지만, URL을 통한 '예약하기' 페이지는 열려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 오후 8시 열린 사전예약 시스템은 접속 장애가 빚어졌다. 12일 사전예약에 실패한 접종대상자들이 일시에 몰렸던 탓이다. 배경택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초단위 특정 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접속자가 몰린 것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다"며 "앞으로 추진단에서는 예약대상자를 일자별로 최대한 분산해서 예약받을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향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전예약 시스템은 정상 가동 중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15일 낮12시까지 55~59세 예약자는 총 253만3080명, 예약률은 71.3%로 집계됐다. 14일 오후 8시 이후 예약자는 70만542명이다. 그 외 대상의 예약률은 교육·보육 종사자와 돌봄인력이 93.4%, 60~74세 예약자 중 미접종자는 45.2%다. 코로나19 백신은 14일 화이자 백신 79만9000회분이 추가 공급됐다. 이날 0시 기준 예방접종 인원은 1차 접종자가 11만1631명, 접종 완료자는 10만2000명 추가됐다. 1차 이상 누적 접종자는 1583만6992명, 인구 대비 접종률은 30.8%로 집계됐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내국인도 음성확인서 없으면 입국 못해

### 델타 유입 방지...한국행 탑승 제한 외국인 입국 반토막·내국인은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코로나19를 피해 입국한 내국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5일 발표한 '2020년 국제인구 이동 통계'에서 체류기간 90일 초과 국제이동자는 총 123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3만3000명(-15.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입국자는 67만3000명으로 7만6000명(-10.1%) 줄었으며, 출국자 또한 56만 명으로 전년보다 21.9% 감소한 15만7000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입국자는 전년 대비 20만5000명

(-46.8%) 급감한 23만3000명을 기록했다. 출국자는 36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4000명(-15.0%) 감소했다. 이는 12만8000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순유출이다. 내국인 입국은 전년 대비 12만9000명(41.5%) 증가했다. 해외연수 등으로 출국한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국한 것이다.

정부는 15일부터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내국인도 국내 입국을 금지했다. 최근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외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그동안은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만 입국이 금지됐으며, 내국인은 시설 격리 후 최종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에서 해제됐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RE100] 가입

# 지구에게 100점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SK하이닉스가 RE100에 참여합니다

사용전력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조달하는 친환경적인 노력으로

반도체 기술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고민을 아끼지 않는

ESG경영 실천 기업이 되겠습니다



# 정부 '발전소 하청 직고용' 인권위 권고 수용 거부

**'제2 김용균 막아라' 권고 2년  
"인국공 같은 노노 갈등 우려"  
석탄화력발전소 필수 인력  
자회사 만들어 정규직 전환**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 이를 막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정부와 발전회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

전 등 발전 5개사가 회신한 권고 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들이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하고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올해 2월 발전 5개사 사장들에게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업무를 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산업부·기재부 장관에게 하청노동자 직고용을 위해 발전사들의 조직·인력·예산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앞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019년 8월 진상조사 뒤 제시한 권고안 22개 가운데 첫 번째로 노동 안전을 위한 연료·환경

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든 바 있다. 협력사 노동자의 안전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는 발전회사가 그들의 안전을 위한 설비 개선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협력사 또한 이를 본받아 더 위험한 업무의 재하도급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책임도 재하도급 업체로 넘기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피 권고기관은 인권위에 보낸 답변서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경상정비 분야는 현행과 같이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계약 기간 연장·고용 승계 등 고용안정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업무는 석탄화력발전시스템 운영의 상시적 업무로서, 분절화되지 않고 공정 간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는 업무 특성상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자회사 정규직이나 민간위탁 모두 실질적으로는 외주화라는 점에서 권고가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직고용 수용은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보듯이 경쟁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노노 갈등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이후 구성된 노사정 협의체에서 확정된 자회사 정규직화 등의 고용안정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에서 인권위가 왜 문제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도급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입법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됐지만 유사한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노동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중장기 과제로 미뤄 두기에는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금감원, 하나銀 사모펀드 제재심 시작**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15일 오후 2시부터 15차 제재심을 열고 하나은행의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제재심에 따른 징계 수위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소한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성규(왼쪽) 하나금융 부회장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판매 관련 제재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전 탄소중립 총괄 전력혁신본부 신설

정승일 사장, 첫 조직개편

한국전력이 전력산업의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이를 총괄하는 전력혁신본부를 신설했다.

한전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정승일 한전 사장 취임 이후 단행된 첫 조직개편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전력공급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고 전력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를 위해 한전은 탄소감축 기술 개발, 재생 및 분산전원 확산을 위한 계통운영전략 수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등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력혁신본부를 신설했다. 전력혁신본부는 산하에 탄소중립전략처와 지속성장전략처를 두고 있다.

**최연소 본부장** 탄소중립 전략처는 신재생 및 분산전원 확대에 대비해 전력망 운영체계를 혁신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기술의 경쟁력 확보 전략 및 실행방안을 수립한다. 지속성장 전략처는 전기소비자의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전력금급 방식과 고객 서비스 등 각종 제도와 절차를 혁신하고,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실행을 총괄한다.

전력혁신본부를 이끌 수장에는 최현진 전력시장처장이 임명됐다. 한전 역사상 최연소 본부장이자, 지속성장전략처장엔 40대인 주재가 예산실장이 선임됐다. 역량 있는 젊은 부사장을 전면내세운 것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탄소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하에서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전 분야의 선제적 기술혁신, 에너지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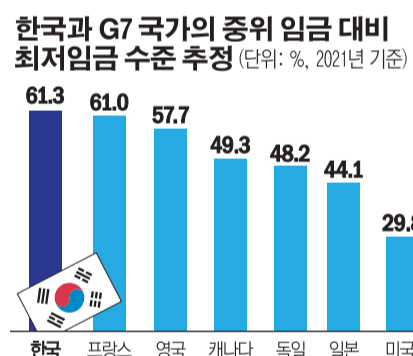
## 경총 "주휴수당 포함 땀 내년 실질 최저임금 1.1만원"

**"과도한 인상 소상공인 위협  
정부에 공식 이의제기할 것"**

경영계가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시급 9160원)에 반발했다. 이들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을 5.1%의 산출 근거는 현실에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



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산식 방식에 따르면 현 정부(2018~2022)에서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2017~2021)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증가율 2.6%를 고려해 15.6% 인상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41.6% 인상됐다. 경총은 경제 상황과 비교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한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 1.5% 인상)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 경제성장률(-0.9%)과 소비자물가상승률(0.5%), 취업자증가율(-0.8%)을 고려하면 0.4% 인상에 그쳐야 했으나 1.5% 인상된 바 있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상 최저임금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서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을 편차가 40.4%포인트(숙박음식업 42.6%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향후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상반기 車 수출액, 반도체 대란 뚫고 7년 만에 최고

236억 달러...친환경차 50억 달러  
코로나 전인 2019년보다 9% 많아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및 6월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1~6월 자동차 수출 대수(104만9658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9% 증가했다. 이는 2012년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수출금액은 49.9% 늘어난 236억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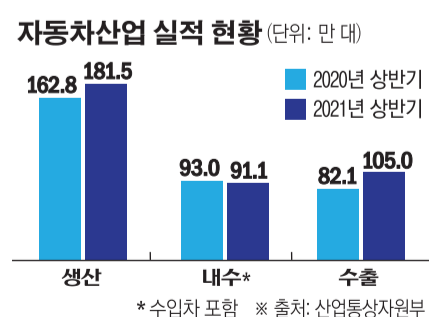
만 달러로 2014년 상반기(252억3000만 달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수출 판매(17만2921대)가 반기 기준 최다 실적을 기록하면서 친환경차 수출액이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는 반도체 수급 차질에 따른 일부 생산 차질에도 글로벌 시장 판매호조에 따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출액(216억8000만 달러)을 8.9%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며 "수출 주력품목을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및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등 수출 품목 구조를 고도화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

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자동차 생산 대수(181만4510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해 일부 공장이 휴업했음에도 신차 출시 및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11.5% 늘었다. 내수 판매(91만904대)는 작년 상반기 내수 진작 정책에 따른 역기저효과와 부품 수급 곤란에 따른 생산 차질 영향으로 2.1% 줄었다. 다만 역대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

국산차 판매는 전년보다 5.5% 적은 74만9988대, 수입차 판매는 17.5% 늘어난 16만9166대로 집계됐다. 친환경차 내수 판



매의 경우 68.9% 증가한 15만7567대를 기록했다. 이 역시 반기 기준 최다 판매 실적이다.

지난달 자동차 생산과 수출 대수는 전년보다 각각 9.7%, 38.1% 늘었다. 수출액은 62.5% 늘어난 40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내수 판매는 19.4% 줄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최재형 국민의힘 전격 입당 “정권교체에 온힘 쏟을 것”

# 마이웨이 윤석열 ‘사면초가’ 추락이나 반등이나 기로에



최재형(왼쪽) 전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모바일 입당원서를 작성한 뒤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핸드폰을 들어 보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반기문재단을 찾아 반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했다. 윤 전 총장은 환경과 외교안보에 대한 의견뿐 아니라 정치 활동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국회사진취재단

## 감사원장 사퇴 17일 만에...尹과 차별화 낮은 인지도 올리고 입지 굳히려는 의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직 사퇴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다른 길을 걸으며 낮은 인지도를 올리고 입지를 굳혀갈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후 “오늘 제가 평당원으로서 입당한다”며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야당을 만드는 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의 입당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 사퇴 후 빠르게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한 배경에는 윤 전 총장이라는 야권 유력 주자를 의식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원장은 대변인도 따로 두지 않으면서 윤 전 총장의 ‘전인 정치’와 차별을 뒀다. 이날 환영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변인을 안 두는 게 전인 정치를 안 한다는 뜻이냐’는 물음에 “그런 의미도 있다”고 답했다. 최 전 원장 측 관계자도 “대변인은 쉽게 말해서 전인 정치”라며 “최 전 원장이 원하는 건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약한 세력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들어와도 손해, 안 들어와도 손해인 상황에서 들어온 게 낫다”며 “빨리 당에 들어와 세력을 확장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은 인지도가 낮아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이라며 “당에 들어오는 순간 인지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최 전 원장의 입당으로 윤 전 총장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로 경쟁 체제가 될 것”이라며 “당이 지원해서 후보가 될 최 전 원장과 당 밖에서 중도 우파를 뽑아가겠다고 하는 윤 전 총장의 대결 구도”라고 예상했다. 박준상 기자 jooon@

## 낙달 만에 지지율 20%대로 내려앉아 장모 구속·아내 문제 등 리스크 불거져

만년 1-2위를 고수할 것 같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 낙달 만에 20%대로 내려앉았고 그사이 여론 대선주자들이 바짝 따라붙었다. 정치권에선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며 윤 전 총장의 ‘용두사미(龍頭蛇尾)’ 가능성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1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2~13일 전국 성인 20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7월 2주차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결과, 윤 전 총장은 27.8%를 기록해 20%대로 떨어졌다. 윤 전 총장과 여권 단일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 구도도 접전 양상을 보였다. 윤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각각 39.4%, 38.6%의 지지를 얻으며 격차를 좁혔다.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윤 전 총장과 격차를 기존 20.9%포인트(3주 전)에서 4.3%포인트로 좁히며 바짝 따라잡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이지 참조)

윤 전 총장의 지지도가 하락세에 접어든 것은 장모 구속 이후부터다. 여기에 아내 문제 등으로 리스크가 커졌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문재인 정권의 전황에 날을 세우며 공격적인 메시지를 쏟아내며 정작 본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도 한몫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시종일관 “하루라도 빨리 입당하라”는 제안에도 외연 확장에만 몰두하고 있어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그 와중에 또 다른 야권 ‘페이스 메이커’로 떠오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 보름 만에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하며 보수 표심을 확보한 점도 부담이다.

윤 전 총장이 처한 현 상황이 ‘사면초가(四面楚歌)’, ‘진퇴양난(進退兩難)’으로 비유되는 이유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전 총장은 반문 정서에 기대 현 정권이 잘 못 하는 문제만 지적하고 있다”며 “국민은 윤석열의 것, 윤석열의 진단과 미래를 보고 싶은 것이지 탈원전 문제를 궁극해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자질 문제인데, 금세 거품이 꺼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이재명>

<이낙연>

# 사이다 복귀 李 vs 정면대응 李 ‘강대강’

### 이재명 캠프 “맞고만 있지 않을 것” 이낙연 캠프도 “형수 발언 치명타” 9월까지 네거티브 공중전 이어갈 듯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양강인 이재명(왼쪽 사진) 경기도지사와 이낙연(오른쪽 사진) 전 대표가 강대강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이 지사는 ‘사이다 복귀 선언’을 했고, 이 전 대표도 상승세를 타며 견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어서다.

이 지사는 지난 14일 “원래로 (사이다로) 되돌아가야 할 것 같다. 쏘는 맛은 조금 줄어서”라고 밝힌 데 이어 15일 이 지사 캠프 좌장격인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화상 기자회견을 열어 “맞고만 있지 않겠다”며 ‘사이다 복귀’를 공식화했다.

조 의원은 “1위 후보라 집중공격 받는 건 심분 이해할 수 있지만 검증은 팩트와 품격에 기초해야지, 저급한 네거티브는 안 된다. 계속될 경우 캠프 차원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선 후보들이 국정·도정·당 운영 등 공직자로서 어떤 성과를 내 평가를 받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게 본경선의 취지”라며 이 전 대표의

전남지사·국무총리·당 대표 당시 부진한 성과에 대한 우회적 공세를 했다. 정진욱 캠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대표의 전남지사 시절과 이 지사의 공약이행 평가를 단적으로 비교하기도 했다.

이 지사도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정 갈등과 관련해 “고감하게 날지기해야 한다”며 사이다 복귀를 과시했다.

이낙연 캠프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이 지사가 이 전 대표 측근의 오피터스 복합기 대담 의혹 사건을 언급한 데 대해 ‘네거티

브’라 규정했다. 설 의원은 해당 측근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그 문제를 끄집어 내면 가족들의 아픈 가슴을 또 한 번 후비는 결과가 될 거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설 의원은 이 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을 거론하며 “본인이 사과도 했지만 형수와 형에 대한 발언이 특히 여성들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궁지에 몰리니 ‘제1 공약이 아니다’고 빼는 얘기를 했다. 기대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실망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이 지사 측은 네거티브를 하지 말고 정책 경쟁을 하자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해 네거티브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 전 대표가 점잖은 성격이라 그간 본인이 직접은 제대로 맞서지 못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입이 트이고 있으니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네거티브 공중전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선이 애초 9월 초에서 2주가량 연기될 공산이 커져서다. 두 후보의 결선투표까지 진행된다 고 가정하면 9월 말까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uknow@

# 이낙연, ‘위헌’ 택지소유상한제 부활 법안 발의

### 1인당 소유 1320㎡ 제한 등 토지독점규제 3법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 제도를 포함한 ‘토지독점 규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3배가량 늘리겠다는 의지다.

그는 헌법 해석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이고 강력한 집행력을 갖도록 개별 법률에서 각각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독점규제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 후보는 이번 발의에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부활시켰다.

다만 위헌 논란 부분은 제거했다. 위헌결정 이전 택지소유상한법은 서울과 광역시 지역의 택지는 개인이 일몰적으로 660㎡(약 200평)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가 준비한 제정안은 1320㎡(약 400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약 605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면적을 최대 3배까지 넓혔다. 서울과 광역시

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약 600평), 그 이외의 지역은 2640㎡(약 800평)를 상한으로 두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각각 2500㎡(약 756평)와 3000㎡(약 907평)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최초 법을 제정할 당시 수준으로 높였다.

이 전 대표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토지임대부 형태의 주택공급도 함께 추진해 현재 7.4%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까지 약 3배 정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바뀌 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조기 긴축” 운 덴 글로벌 중앙銀, 연준 홀로 “완화 유지”

英 인플레이 조짐에 정책조정 시사  
加 채권매입 축소·뉴질랜드 중단  
파월 “병목현상 풀리면 역전” 관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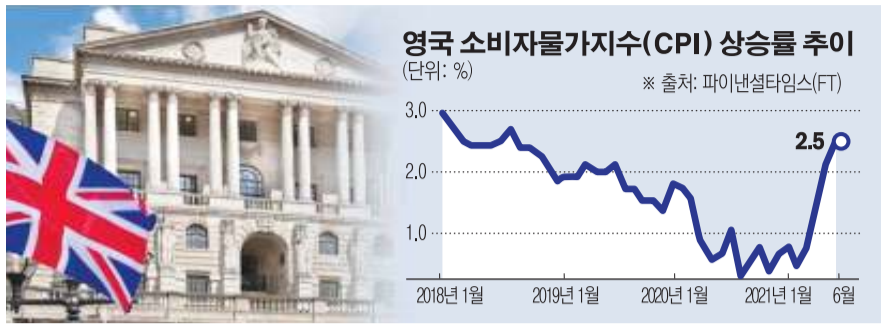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긴축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하고 그 폭도 가팔라지자 정책 조정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앙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만 유일하게 기존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은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5%를 기록해 석달 연속 영란은행(BOE)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뛰어넘자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긴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데이비드 랑스덴 BOE 부총재는 “5월에 전망치를 발표한 이후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진 점을 미뤄볼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일찍 긴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BOE는 긴축 시기에 대해 밝히진 않았다. 다만 6월 CPI가 발표되기 전 시장에서 2023년 전에 금리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없던 만큼 랑스덴 부총재의 발언은 긴축이 예상보다 이를 것임을 암시한다.

캐피탈이코노믹스의 폴 달라스 수석 이



코노미스트는 “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가격 인상으로 진정된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중앙은행(BOC)은 양적완화 축소의 첫걸음을 뒀다. BOC는 이날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한 대신 자산매입 규모를 종전의 주당 30억 캐나다달러(약 2조 7290억 원)에서 20억 캐나다달러로 줄이기로 했다. 티프 맥클렐 BOC 총재는 “매입 프로그램 조정은 경기회복을 향한 지속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은 아예 채권매입을 중단했다. RBNZ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그동안 시행하던 매입 프로그램을 23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에이드리언 오어 RBNZ 총재는 “디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 등 주요 경기 하방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RBNZ가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은 8

월 76%, 11월 100%로 집계돼 금리 인상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이 긴축을 고민하지만, 연준만은 다른 행보를 보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참석해 완화적인 통화정책 유지를 고수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높았고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더 지속했다”면서도 “이는 높은 수요와 낮은 공급이 초래한 것으로, 병목 현상이 풀리면 일부 역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사라질 것 같은 것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예상보다 높지만, 여전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수준과 일치한다”며 “연준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정책을 적절하게 변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0@

## EU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업계 “기술혁신 저해·고용 악화” 반발

유럽연합(EU)이 난방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경제 모든 분야에서 과감한 탈(脫)탄소 행보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여기에는 2035년 역내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는 이날 역내 온실가스 대폭 감축을 위한 포괄적인 탄소 배출 감축 계획 ‘핏 포 55’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한 55% 줄이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 산업에 화석연료 탈피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휘발유·디젤 등 내연기관 엔진 차량의 신차 판매를 2035년부터 사실상 금지하고, 역외에서 수입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에 대해 세계에서 최초로 국경 탄소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국경탄소세는 2023~2025년을 이행 기간으로 두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EU보다 환경 규제가 낮은 나라에 대해서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 더욱 공평한 경쟁 환경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이번 정책 제안에서 EU가 무엇보다 중점을 둔 것이 자동차 등 운수 부문의 탄소 배출량 삭감이다. EU 배출량 거래제도의 대상이어서 발전과 제조업 운수 분야 배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단일 기술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

### EU 기후변화 대응 정책 패키지 ‘핏 포 55’ 주요 내용

- 1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 사실상 금지
- 2 국경탄소세 신설
- 3 EU 탄소배출 거래제도 대상에 해운업 포함
- 4 도로교통과 빌딩 대상으로 새로운 배출 거래제도 도입
- 5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40%로 상향 (현재는 최종 에너지 소비 대비 32%)
- 6 에너지 효율 36~39%로 상향 (현재는 32.5%)
- 7 항공연료 대상으로 에너지세 인상 방향으로 개정
- 8 탄소 가격 상승에 취약한 사람들 위한 구제기금 신설

\* 출처: 니혼게이지아신문

법이 아니라며 EC의 새 목표를 비판했다. 올리버 집세 ACEA 회장은 “EU는 특정 기술을 강제하거나 사실상 금지하긴 하지만 혁신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세는 BMW 최고경영자(CEO)이기도 하다.

힐데가르트 물러 독일자동차협회(VDA) 회장은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은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내연기관차를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기술혁신 가능성을 닫고, 소비자 선택 자유를 제한하며, 많은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호소했다.

방침에 반발하는 것은 비단 산업계 뿐만이 아니다. 프랑스는 자국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면서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새 목표에 반대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내연기관 차량 퇴출로 2035년까지 프랑스에서 약 10만 개 자동차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현지 자동차 산업은 현재 약 19만 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인니, 하루 5.4만명 확진 ‘세계 1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인근 브카시의 한 국영 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15일(현지시간) 방호복을 입은 채 병원 응급실 밖에 마련된 임시 치료소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살피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전날 기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4517명으로, 사상 최다를 경신했다. 인도네시아의 일일 확진자 수는 12일부터 인도·브라질 등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 중이다.

브카시/로이터연합뉴스

## 영화 점령한 넷플릭스, 게임도 넘본다

폐북 출신 개발 책임자 영입 “내년 중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

세계 최대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영화와 드라마에 이어 게임까지 넘보고 있다. 이미 자체 영상 콘텐츠로 게임을 만들기 시작한 넷플릭스는 업계 전문가를 영입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대 목적으로 페이스북 비디오게임 책임자인 마이클 버두를 게임 개발 담당 부사장으로 고용했다.

버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일렉트로닉 아츠(EA), 카툰, 징가, 아타리 등 유명 게임회사를 두루 거친 전문가로, 지난 2년간은 페이스북 자회사이자 가상현실(VR) 기기 업체 오클러스에서 게임과 기타 콘텐츠 개발을 책임졌다.

넷플릭스는 “버두는 게임 개발 부사장으로

로 합류해 그래픽 피터스 최고운영책임자(COO)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수개월 내 버두를 중심으로 한 게임 팀을 별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미 홈페이지에는 게임 개발자 채용 공고가 게시됐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넷플릭스가 내년 중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버두의 영입은 사업을 확장하려는 넷플릭스의 야망을 보여준다. 이미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IT 기업들이 게임 사업에 뛰어들어 경쟁력 확보에 분주하다. 넷플릭스 역시 2019년 E3 게임 콘퍼런스에서 비디오와 PC용 게임을 출시하며 시장에 뛰어 들었다. 당시 넷플릭스는 주주 서한을 통해 게임 포트나이트를 차기 경쟁자로 지목할 정도로 자신감을 내

비치기도 했다. 특히 자사가 자체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게임을 만들고 있다는 게 회사의 경쟁력이다. 처음 출시한 게임 역시 넷플릭스 오리진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 내용을 각색해 탄생했다.

여전히 2억 명 넘는 전 세계 가입자를 보유 중이지만, 신규 가입자 수가 둔화하는 만큼 넷플릭스는 게임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요금 인상에 도움이 될 기회를 얻게 됐다.

기타 랭가나단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가 콘텐츠 전략 확장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는 서비스 매력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넷플릭스는 사용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대영 기자 koda0@

## ECB ‘디지털 유로화’ 도입 착수

가상자산 대체할 결제수단 확보, 2026년 상용화 예상

서구권이 가상자산(가상화폐) 대항마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준비를 본격화한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날 “기어를 울려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개시한다”며 “CBDC 발행을 위한 프로젝트에 공식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유로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시민이 상업은행이 아닌 ECB에 디지털 화폐를 보관하는 일종의 ‘디지털 지급’과 같은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스템 혼란을 피하고자 신중하게 도입을 진행, 발행은 2026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유로 설계를 위한 2년간의 조사 작업에 착수한다. 사용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돈세탁 등 불법행위를 막고, 금융 시스템이나 정책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디지털 통화의 설계 등을 진행한다. 이후 유럽의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법제화 작업을 추진한다.

ECB가 이처럼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에 나선 이유에는 현금에서 디지털 결제로의 이행이 가속화하는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시대에 시민과 기업이 가장 안전한 형태인 중앙은행 통화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성명문은 “디지털 유로는 현금을 보완하는 것이 대체할 수 없다”는 견해도 명기했다.

이러한 ECB의 움직임은 다른 중앙은행들의 CBDC 개발 움직임을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영국은 지난 4월 자국의 CBDC인 ‘브리트코인’ 개발을 탐색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올해 CBDC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디지털 화폐, 즉 디지털 달러가 생기면 스테이블 코인도, 가상자산도 불필요해질 것”이라며 “디지털 연구와 관련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9월 초 CBCD 연구 보고서를 발표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은 그러면서도 기축통화 보유국으로서 제대로 올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아시아 국가들도 CBDC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2014년 CBDC 개발에 착수했던 중국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디지털 위안의 선전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변효선 기자 hsbun@

# ‘신제품 정보 유출’ 날 세운 삼성, 법적 대응 고심

출시 예정 제품 렌더링 등 떠돌아 저작권 침해 신고로 게시물 내려

공식 언팩 초대장 발송 안 했지만 내달 11일 행사 개최 기정사실화

삼성전자가 다음달 출시할 갤럭시 신제품에 대한 과도한 유출을 경고했지만, 곳곳에서 정보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가 ‘강력 대응’의 수위를 법적 조치로 높일지 주목된다.

15일 IT 전문 외신 등에 따르면 갤럭시 Z 폴드3에 대한 벤치마크(시스템 성능평가)가 깃헙에 등장했다. 깃헙은 벤치마크 전문 툴이다.

깃헙에서 테스트 된 ‘갤럭시Z 플립3’는 SM-F711U 모델 번호를 가진 미국 출시 모델이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의 두뇌인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퀄컴 스냅드래곤 888을 사용하며, 최소



에반블래스가 공개한 갤럭시 신제품 이미지.

에반블래스 트위터 캡처

8GB 램을 장착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갤럭시 Z 폴드3의 벤치마크가 공개된 바 있다. 이 제품 역시 퀄컴 스냅드래곤 888과 8GB 램을 달았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에서 선보일 또 다른 제품인 ‘갤럭시워치4’의 사양과 출시 일정, 가격도 나왔다. 아마존 캐나다 웹사이트에 잠시 올라왔다 삭제된 내용이다.

갤럭시워치4 클래식은 42mm와 46mm 두 가지로 출시된다.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다. 갤럭시워치4는 40mm와 44mm로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됐다. 출시일은 8월 27일이다.

가격은 갤럭시워치4 클래식 42mm와 46mm 모델이 각각 428캐나다달러(약 39만

원)와 464캐나다달러(약 43만 원)다. 갤럭시워치4는 40mm와 44mm가 각각 310캐나다달러(약 29만 원), 347캐나다달러(약 32만 원)로 책정됐다.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Z 플립3 등에 대한 실물 렌더링 사진도 온라인상에 돌아다닌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에서 공식 언팩 초대장을 아직 보내지 않았는데도, 8월 11일 언팩 행사가 열리는 게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이 같은 신제품 유출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일 IT팁스터(정보유출가) 맥스 잠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삼성전자가 아직 출시되지 않은 제품과 관련한 이미지나 동영상의 유출을 막기 위해 저작권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후부터 맥스 잠보가 게시한 영상을 클릭하면 삼성의 저작권 침해신고로 더는 접속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뜬다.

그러나 또 다른 팁스터 에반 블래스는 트위터에 공개했던 신제품 유출 렌더링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각

종 신제품 정보와 이미지 등이 곳곳에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그야말로 삼성전자의 경고가 무색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삼성이 향후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정보 유출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 적은 없다. 유출의 긍정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 유출에 대한 정도가 지나친 탓에 삼성전자로서는 강력 대응의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T전문 외신 폰아레나는 “삼성전자가 향후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유출된 렌더링이 회사 지적 재산인 만큼 출판물에 대해 법적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애플 역시 정보 유출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애플은 “출시 전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계속 유출할 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중국 IT팁스터 등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록 기자 syr@

## 에쓰오일, 627일간 안전사고 ‘0’

에쓰오일(S-OIL)은 9일 무재해 800만 인시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10월 22일부터 총 627일간 상해사고뿐만 아니라 화재, 폭발 등 물적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1980년 울산공장 가동 이후 가장 긴 기록이다.

후세인 알 카타니 CEO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목표를 반영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울산공장 전체에 뿌리내린 결과라고 회사 측은 평가했다.

카타니 CEO는 2019년 부임 이후 매일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공장에서는 매주 임원·관리자 합동 현장 순회 점검(Safety Walk-Through), 부서별 안전 면담 등으로 안전 문화 증진에 힘쓰고 있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 “나만을 위한 이동식 스크린” LG전자 ‘스탠바이미’ 공개

LG전자는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고객층을 겨냥한 신개념 무선 프라이빗 스크린(사진)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LG 스탠바이미(StanbyME)는 제품 콘셉트에 맞춰 기존 TV와는 차별화된 무빙스탠드 디자인을 적용했다. 제품 하단에 무빙휠이 적용돼 원하는 곳으로 옮겨가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내장 배터리를 탑재해 전원 연결 없이도 최장 3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27형(대각선 길이 약 68cm) 화면은 △ 화면 좌우를 앞뒤로 각각 65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스윙블(Swivel) △ 위아래로 각각 25도까지 기울일 수 있는 틸트(Tilt) △ 시계 및 반시계방향 각각 90도 회전하는 로테이팅(Rotating)을 모두 지원한다. 높이도 최대 20cm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삼성, AI·암호 등 ‘미래기술 육성’ 152억 지원

로봇 시·촉각 인식 기술 포함 지정테마 연구과제 12개 발표

삼성전자가 어드밴스드 인공지능(AI), 차세대 암호 시스템, 로봇 등의 연구를 위해 152억1000만 원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15일 2021년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정테마 연구지원 과제 12개를 발표했다.

올해 삼성전자는 올해 지정테마 연구 지원 과제로 △어드밴스드 AI △차세대 암호 시스템 △B(Beyond)5G&6G △로봇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자 및 공정 등 총 6개 분야에서 12개를 선정했다. 이번 지정 테마에는 △차세대 암호 시스템 △어드밴스드 AI가 새롭게 선정됐다.

‘어드밴스드 AI’ 분야에서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황도식 교수의 ‘순환 추론형 인공지능-자기 질의응답 기반 자동 의료 진단 기술’ 등 총 2개 과제가 선정됐다.



황도식 연세대 교수, 송용수 서울대 교수, 김민구 인하대 교수, 최수석 포스텍 교수, 정권범 동국대 교수

‘차세대 암호 시스템’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송용수 교수의 ‘다자간 근사계산 암호 원천기술 개발’ 과제가 선정됐다. 클라우드 내에 보관된 민감한 자료의 비밀성은 유지하면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기술이다.

‘로봇’ 분야에서는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김민구 교수의 ‘동적 질량 중심을 가지며 변형 가능한 물체를 인간 수준으로 조작하기 위한 ‘시-촉각 인식 기술’ 과제가 선정됐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최수석 교수의 홀로그램 구현을 위한 광원 기술의 일환인 ‘파장 조절이 가능한 페로브스카

이트 나노결정 기반 화소 배열형 키랄 레이저(Chiral Laser) 연구’ △동국대학교 물리반도체과학부 정권범 교수의 ‘초고해상도 PPI(Pixel Per Inch) 디스플레이용 트랜지스터 소자의 인라인 모니터링을 위한 결합 이미징 기술 개발’ 등 4개 과제가 선정됐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육성·지원을 목표로 삼성전자가 2013년부터 1조 5000억 원을 출연해 시행하고 있는 연구 지원 공익사업이다. 올해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03건의 연구 과제에 1059억3000만 원을 지원했다.

송영록 기자 syr@

## LS전선, ESG 기반 ‘친환경·안전 케이블’ 상용화 가속

ESG경영 비전 선포·전담반 신설 전 사업장 재생에너지 전환 박차

LS전선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비전을 선포하고, ESG위원회와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ESG 경영을 가속한다고 15일 밝혔다.

LS전선은 △녹색 인프라 혁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안전 최우선 사업장 구현 △공정하고 투명한 ESG경영을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LS전선은 2024년 동해사업장, 2025년 폴란드 사업장에서 100%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RE100’을 달성하고, 이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 동해 사업장과 경북 구미2사업장은 올해부터 이미 ‘RE50’을 실행하고 있다.

LS전선은 친환경 제품의 비율도 2030



올 초 LS전선은 케이블 절연 재료로 친환경 소재인 폴리프로필렌(PP)을 적용한 제품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다. 사진제공 LS전선

년까지 50%로 늘릴 계획이다. 올 초 LS전선은 케이블 절연 재료로 친환경 소재인 폴리프로필렌(PP)을 적용한 제품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다.

PP는 제조 과정에서 메탄가스 등 유해 물질이 생기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각종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또, LS전선은 고내화, 고난연 케이블 등 재난 안전 케이블의 개발과 확산을 통해 사회 안전에도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고내화 케이블은 화재 발생 시에도 비상 등,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안전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해 주고, 고난연 케이블은 대규모 산업단지, 초고층 빌딩,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화재 확산을 늦추는 대형 화재 예방에 기여한다.

LS전선은 협력사의 ESG 경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사의 안전사고 예방과 ESG 경영 기준 정립,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 LG 스마트폰 사업 철수發 인력 재배치 성공적 마무리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한 가운데, 모바일 사업을 담당해온 MC사업본부 직원 3300명에 대한 인력 재배치가 최근 마무리됐다. 대규모 인력을 조정하면서도 큰 잡음 없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15일 LG전자와 LG그룹 등에 따르면 MC사업본부 직원 약 3300명 가운데 약 600명이 LG그룹 계열사로 이동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곳은 지난해 말 LG화학에서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으로 약 300명이 이동했다. LG유플러스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X세미콘 등에도 나머지 300명이 재배치됐다.

MC사업본부 3300명 가운데 약 80%에 달하는 2700명은 LG전자에 잔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업본부에 300~500명이 충원됐으며,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A사업본부가 가장 많은 인원을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연구개발을 맡은 CTO(Chief Technology Office) 부문에는 약 800명이 이동했고, 이달 출범한 전 기차 파워트레인 합작법인인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으로는 약 50명이 이동했다.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퇴사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회사와 직원 모두 ‘윈윈(win-win)’하는 사례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위니아 3인용 식기세척기’ 출시

위니아담체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식기세척기 시장에 강력한 세척과 크린 스팀의 고온 살균으로 위생 관리까지 가능한 ‘위니아 3인용 식기세척기’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위니아 3인용 식기세척기는 급수 설치가 필요 없는 분리형 물통을 적용해 복잡한 설치나 가구를 재배치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기능인 ‘크린스팀’은 70도 이상 고온의 스팀을 발생시켜 찌든 때 세척이 가능하고 접시에 남아있는 기름기까지 강력하게 씻어낸다. 위니아 3인용 식기세척기는 11번가,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출하 가는 20만 원대다.

노우리 기자 we1228@

**삼성전자 '취향저격' 에어컨 라인업 확대** 삼성전자가 소비자 개개인의 취향을 겨냥한 다양한 에어컨 라인업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여름 사냥에 나섰다. 올해는 기존 스탠드·벽걸이형 에어컨에 무풍에어컨 라인업을 늘리고 창문형 에어컨까지 추가했다. 또 디즈니와 협업한 한정판 제품도 선보이며 제품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무풍에어컨 신제품 '비스포크 무풍클래식'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2021년형 무풍에어컨 신제품 '무풍갤러리'를 소개하고 있다.



미키에디션 바람문 패널이 적용된 모습.

## ‘비스포크 無風’으로 올 여름 無더위

삼성전자는 올해 2월 가구 같은 디자인으로 인기가 높은 '무풍갤러리'와 '비스포크(BESPOKE)' 디자인을 적용한 '무풍클래식' 신제품을 출시했다.

무풍클래식은 삼성 독자의 무풍냉방 등 탁월한 냉방 성능을 구현하는 무풍에어컨의 기본 제품군이며, 무풍갤러리는 무풍에어컨의 최상위 라인업으로 강력한 냉방 성능은 물론 전면이 바람문을 없앤 고풍적 디자인을 갖춘 제품이다.

무풍갤러리는 새로운 디자인과 인공지능

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AI 기술로 알아서 제품을 간편하게 관리해주는 '이지케어 AI' 기능과 필요 시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제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지케어 셀프' 기능도 탑재했다.

비스포크 무풍클래식은 비스포크 가전에 도입해 인기를 얻었던 5가지 색상을 바람문 패널에 적용했다. 특히, 바람문 패널은 소비자 취향과 인테리어에 맞게 다른 색상으로 교체가 쉬운 구조로 설계됐다.



비스포크 무풍 벽걸이와이드 벽걸이형 에어컨.



창문형 에어컨 '윈도우 핏'



2021년형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엔 전문가 도움 없이도 열 교환기를 세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워시클린' 기능이 추가됐다.

도우 핏(Window Fit)'도 출시하며 틈새 시장도 공략하고 있다. 최근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으로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주목해 창문형 에어컨을 도입했다.

삼성 윈도우 핏은 실외기와 실내기를 하나로 합친 일체형 에어컨으로, 창문이 있는 곳이면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창문에 전용 프레임과 에어컨을 부착하기만 하면 돼 복잡한 설치 과정이 필요 없

저소음 모드로 사용 시 40dB(데시벨) 수준으로 작동해 여름철 열대야에도 소음 걱정 없이 숙면할 수 있으며, 일반 냉방 모드와 비교해 소비전력을 최대 70%까지 절감해 전기료 부담도 한층 덜 수 있다.

소비자의 다양한 디자인 취향을 겨냥한 협업도 이어간다. 올해는 비스포크 무풍에어컨에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 캐릭터를 입힌 '미키 에디션'을 출시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아 온 미키 마우스를 심플하게 형상화해 '비스포크 무풍 벽걸이와이드'

### 무풍갤러리, 사각지대 없는 급속냉방·아트패널로 인테리어 효과 무풍클래식, 바람문 패널 비스포크 색상 적용·'이지케어' 탑재

능(AI) 기반 위생·편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전면부에 'V'자 형태의 격자 무늬가 돋보이는 '쉐브론 메탈 아트 패널'을 도입했다.

또한, 소비자가 손쉽게 교체해 다양한 인테리어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제품 하단부 '아트 패널'에는 '트리플 브라운'을 추가했다.

무풍갤러리는 직바람을 없애고 소비전력을 줄여주는 무풍냉방뿐 아니라, 서클레이터 팬을 활용해 사각지대 없이 급속 냉방을 구현하는 '하이패스 서클 냉방' 기능

비스포크 무풍클래식 역시 AI 기술로 제품을 자동 관리해주는 이지케어 AI 기능과 직접 물 세척이 가능한 필터를 적용해 꼼꼼한 위생관리가 가능하다.

5월 들어서는 비스포크 무풍갤러리와 비스포크 무풍벽걸이와이드를 추가 출시했다.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밝은 색상을 추가하고 교체 가능한 패널 구조를 적용해 거실부터 방까지 흠뻑티로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설치 환경 제약 없이 방마다 시원함을 즐길 수 있는 창문형 에어컨 '윈

### 재택근무 확산 등 창문형 에어컨 '윈도우 핏'으로 틈새시장 공략 겨울왕국·아이언맨 등 이어 디자인 협업 '미키 에디션' 출시

며, 이전 설치가 필요한 경우나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계절에 분리하기도 쉽다.

삼성 윈도우 핏은 좌·우·중앙·스윙 등 4가지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한 '2중 바람날개'를 적용해 강력한 바람을 방안 구석구석 넓고 고르게 보내줘 냉방 성능도 뛰어나다.

이 제품의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에는 두 개의 실린더가 회전하면서 진동과 소음을 줄여주는 '트윈 인버터'와 2개의 관을 이용해 냉매의 마찰음을 감소하는 '트윈튜브 머플러'가 적용돼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의 전면 패널과 '비스포크 무풍클래식'의 바람문 패널에 적용했다.

미키 에디션은 패널 액세서리 형태로 출시되며, 비스포크 무풍클래식과 비스포크 무풍 벽걸이와이드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 패널을 구매해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삼성전자가 '겨울왕국 2', '토이 스토리',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등 다양한 캐릭터를 적용해 선보인 무풍에어컨 벽걸이와이드 '디즈니 컬렉션'은 총 4000여 대 한정판으로 출시돼 완판된 바 있다.

## “사계절 가전 된 에어컨, 위생·편의 등 소비자 취향 저격”

###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 개발진

삼성전자의 무풍에어컨 갤러리가 올해 '비스포크'라는 새로운 옷을 입은 건 에어컨이 사계절 내내 사용하는 가전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성능은 물론, 소비자의 취향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색(Color)'에 공을 들였다. 제품의 기본 컬러인 화이트를 완성하는 데에만 3년 넘는 노력이 들어갔다.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를 담당하는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정세훈 디자이너는 “소비자가 실제 사는 1100개의 공간의 인테리어를 분석해보니 83%가 공간이 더 넓고 밝게 보이도록 전체적으로 화이트

전문가 없이 열 교환기 세척 가능  
환기 알람 등 AI 탑재 편의성 높여

와 베이지 컬러와 같은 밝은 톤을 베이스로 적용하고 있었다”라며 “화이트 컬러라도 차가운 감성이 아닌 따뜻하면서도 포근한 계열로 사계절 내내 편안한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흰색의 장점 이면엔 오염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진은 각종 방오(防汚)책도 고민했고, 최적의 코팅제를 개발해 적용했다. 또한,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는 비



2021년형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를 담당하는 황준(왼쪽부터)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엔지니어, 이경주 프로, 정세훈 디자이너, 정창우 엔지니어.

대면 시대에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위생 기능을 추가했다. 전문가 도움 없이도 열 교환기를 세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워시클린'이 대표적인 예다.

황준 엔지니어는 “열 교환기는 에어컨 구조상 가장 안쪽에 위치해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 엔지니어의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했지만, 워시클린 기능이 추가되며 사용자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일 년에 3~4번, 여름 전·후, 장기 보관 전 각 1회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기능 탑재로 편의성도 대

폭 증대됐다. 사용자가 집 근처에 오면 에어컨이 알아서 평소 선호하는 온도로 냉방을 시작하고, 공기 청정 기능도 작동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

빅스비를 호출한 뒤 “TV 꺼줘”, “세탁기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줘” 등 명령을 내리면 그에 맞는 동작을 실행하기도 한다. 이경주 프로는 “와이파이로 연결하지 않아도 음성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온 디바이스 빅스비(On Device Bixby)’, 에어컨 동작 후 환기가 필요한 시점을 알려주는 ‘환기 알람’ 등 다양한 AI 기능이 적용됐다”라고 강조했다.

정창우 엔지니어는 “친환경 흐름에 맞춰 에어컨에도 재생 소재, 친환경 냉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KT, LTE망 안쓰는 '5G 단독모드' 첫 상용화

### “속도지연·배터리 소모 감소”... 갤럭시S20 시리즈부터 적용 ‘진짜 5G’라지만 속도 느려... 업계 “품질 논란 키울까 우려”

KT가 이동통신 3사 중에서는 최초로 5G 단독모드(SA, 옵션2) 상용화에 돌입했다. 주파수 신호와 데이터 전송에서 룬탑에 블루투스(LTE)망을 함께 쓰는 비단독모드(NSA, 옵션3)와 비교해 5G망만을 쓰기에 ‘진짜 5G’로 여겨진다. 다만, 아직은 기술적 한계 등으로 NSA보다 속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5G 전국망 구축 미비와 28GHz 대역 주파수 등 5G에 대한 품질 문제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속도 저하 문제가 불거지면 5G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KT는 15일부터 5G SA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5G 서비스를 개시한 후 2년 3개월여만의 상용화다. 5G SA는 삼성 갤럭시S20, S20+, S20 울트라 3종의 단말에서 제공하고 추후 확대한다. SA 전환을 원하면 단말 메뉴에서 ‘설정-소프트웨어 업데이트-다운로드 및 설치’ 후 1회 더 재

부팅 하면 이용할 수 있다.

KT는 애초 올해 상반기 중 SA 상용화를 준비했으나 여러 검증 절차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각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측정하는 상반기 5G 품질평가가 종료된 것 등을 고려해 이날로 상용화 시기를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국내 이동사들은 3.5GHz 대역에서 5G망과 LTE망을 연동해 쓰는 NSA를 사용한다.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 신호는 LTE망으로 주고받고, 트래픽은 5G망으로 오가는 방식이다. 반면 SA는 신호와 트래픽 모두 5G망을 이용한다. 순수 5G망을 써 NSA보다 지연 시간이 단축되고, 배터리 소모가 적다는 이점이 있다.

KT 역시도 이러한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KT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시험한 결과 삼성 갤럭시S20+ 단말로 SA와 NSA의 배터리 사용시간을 비교한



KT가 5G 단독모드(SA)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5G SA는 5G 주파수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5G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빠른 반응속도로 5G를 사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 KT

결과 SA는 NSA보다 최대 1시간 6분(8.8%)을 더 오래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KT가 먼저 치고 나간 SA 상용화와 관련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G에 대한 여론의 악화를 우려한다. SA 도입에 신중을 기하는 상황에서 자칫 KT의 마케팅에 5G 속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어서

다. NSA로 제공하는 이론상 최대 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2.5Gbps, SA는 1.5Gbps로 최대 속도가 줄어든다. 아울러 2019년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당시 정부와 KT 등 통신사들은 최대 속도가 LTE보다 20배 빠른 20Gbps가 될 것으로 설명했으나 과기정통부가 진행한 작년 하반기 5G 품질평가에서 통신 3사의 속도 모두 1Gbps

에도 못 미쳐 소비자 불만이 쌓인 상태다.

KT보다 앞선 작년 1월 SA 상용화 테스트에 나섰던 SK텔레콤은 지연시간 단축과 배터리 사용량 감축 외에 이점이 없다는 판단에 SA 도입에서 옵션4 개발로 선회했다. 옵션4는 옵션2처럼 LTE망을 사용하지만, 항상 연결이 아닌 필요할 때만 가져다 쓰는 방식이다.

KT는 “2019년 NSA 방식의 5G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SA로의 진화를 염두에 두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SA 상용망 제공을 위해 기술 개발과 필드 검증을 지속했다”며 속도 저하 우려는 없을 것이라 강조한다.

KT의 SA 5G 속도 저하 여부는 올해 하반기 5G 품질평가를 통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초저지연, 배터리 절감 이득이 최고 속도 저하라는 불만보다 중요하지는 않아 보인다”며 “SA를 앞선 기술로 마케팅해 소비자가 오인한다면 최근의 속도 저하 논란과 같은 업계 전반의 제 살 깎아 먹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야놀자, 소뱅 비전펀드서 2兆 유치

### “글로벌 여행 플랫폼 구축”

야놀자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II로부터 총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소프트뱅크그룹은 재일교포 3세인 손정의(일본 이름 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끌고 있다. 당초 업계는 비전펀드 투자 규모를 1조 원 규모로 예상한 바 있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야놀자는 글로벌 1위 클라우드 솔루션 기업으로서, 연간 30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여행·호텔리더티 시장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투자유치금을 활용해 글로벌 호텔리더티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기술개발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자동화 솔루션,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화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보다 진일보한 글로벌 여행 플랫폼을 구축, 운영한다.

문규학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 매니징 파트너는 “야놀자는 인공지능을 앞세운 여가 슈퍼앱 전략을 통해 한국의 여행·레저 산업을 혁신하는 선두주자”라며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 여행·레저 산업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 야놀자와 협력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는 “기술을 통해 전 세계 여가 시장을 초연결시켰다”는 야놀자의 목표를 소프트뱅크 비전펀드II와 함께 이뤄나갈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글로벌 1위 호텔리더티 테크기업이자 여행 슈퍼앱으로서 변화를 리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놀자는 숙박, 레저, 교통, 레스토랑 등 통합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여행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전 세계 여행 기업 중 거의 유일하게 순성장률과 영업이익 개선을 동시에 이루는 등 지속가능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 카카오 킷 전국 확대, 기사 10만명 돌파

### ‘카카오 T’에서 손쉽게 이용

카카오 킷 서비스를 전국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출시 2주 만에 수도권 지역에서 범위를 넓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킷’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 T 킷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하물 이동을 돕는 서비스다.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앱) 안의 ‘킷/택배’ 메뉴에서 물품정보와 출발지·도착지를 입력하고 배송접수를 요청하면 각 이동수단 별로 기사 자격을 인증받은 ‘카카오 T 킷커’ 기사가 방문해 물품을 배송한다.

카카오 T 킷은 지난달 30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해 왔다. 그러나 높은 편의성과 이용자 호응을 바탕으로 출시 2주 만에 전국으

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 전국 어디에서나 킷서비스 주문 접수가 가능해졌다. 기사 수도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 T 킷을 통해 개인 고객들도 별도의 가입절차나 앱 설치 없이 기존에 쓰던 ‘카카오 T’ 앱에서 손쉽게 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물품 픽업 및 도착 예정시간 알림 기능이 더해지고, 앱 내에서 이용 기록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성도 강화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출시 및 전국 확대를 기념해 이달 말까지 카카오 T 킷 최초 이용자에게 웰컴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

카카오 T 앱의 쿠폰함에서 ‘카카오T 킷’을 입력하면 누구나 1만 원 쿠폰을 받아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대원 기자 leedw@



Tel. 1661-9316 | dieuamour.co.kr



**DIEUAMOUR**  
No. 3101 Bellezza Line

# 독일에 맥주 팔고 몽골 신공항 꺾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K편의점

편의점들의 해외 진출이 파죽지세다. 해외 점포 오픈은 물론 PB(자체 상표) 상품 수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 라이벌인 GS25와 CU(씨유)의 해외 점포는 이미 100호점을 넘겼다. 여기에 GS25는 자체 수제 맥주를 '본고장' 독일로 수출하는가 하면, CU는 몽골의 '얼굴'인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입점하는 쾌거를 거뒀다.

BGF리테일은 이달 1일 정식으로 운항을 시작한 몽골 新 칭기즈칸 국제공항(Chinggis Khaan International Airport)에 편의점 CU를 단독 입점시켜 두 개 점포(CU NUBIA302점, NUBIA204점)를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칭기즈칸 국제공항은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약 50km 떨어진 군 쿠싱밸리에 위치한 몽골 유일의 국제공항으로 승객 수용 규모는 현재 1만 1980명이다.

CU는 2018년 4월 몽골 기업인 센트럴 익스프레스와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계약을 체결하고 업계 최초로 몽골 시장에 진출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현지 기업에 브랜드 사용 권한과 매장 개설·운영권을 부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이다.

칭기즈칸 국제공항은 일본 정부가 과반 이상을 투자해 건설한 것으로 한국 브랜드인 CU가 입점하는 것에 대해 공공연하게 난색을 표했지만, 업계 1위라는 브랜드 파워와 고객 선호도를 앞세워 6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운영권을 따냈다는 후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CU의 몽골 점포는 130개를 돌파하며 몽골 편의점 1위 자리를 꺾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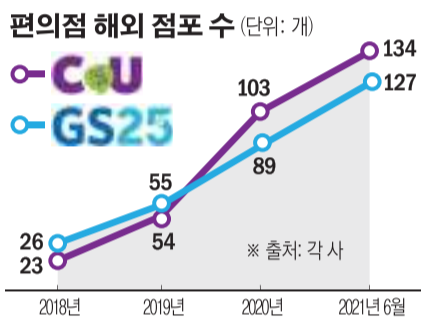
CU의 해외 진출은 몽골 뿐만 아니라 올해 4월에는 말레이시아에 1호점을 오픈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4개로 향후 5년 간 목표는 500호점 이상 오픈이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해외 수출용 PB 상품인 'GET 카페라메캔' 2만 개를 몽골 울란바토르로 수출하기로 했다. CU가 해외 수출 전용 상품을 선보인 첫 사례다.

임형근 BGF리테일 해외사업실장은 "현지 브랜드도 입점하기가 어렵다는 국제공항에 입점하여 몽골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대한민국 브랜드 CU를 알리고 수준 높은 서비스와 상품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더 많은 세계 무대에 도전하여



몽골 신공항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입점한 CU 점포. 사진제공 BGF리테일

**CU, 몽골 진출 4년 만에 130개점...칭기즈칸공항 단독 입점 GS25, 독일로 맥주 수출... 3년간 25개국 누적 수출액 81억 이마트24, 말레이시아 1호점 오픈... 5년 내 300개점 목표**



CU를 K-CV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GS25도 해외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GS리테일은 지난 1일 '전문무역상사' 지위를 획득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발굴과 수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문무역상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출 역량 우수 기업으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00만 달러(약 12억 원) 이상 수출실적 등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부여한다. 국내 편의점 사업자 중에서는 최초다.

GS리테일이 최근 3년간 올린 누적 수출 실적은 710만 달러(약 81억 원)로 연평균 약 236만 달러(약 28억 원) 규모다. 수출 품목 500여종 중 GS리테일의 자체 브랜드 '유어스' 상품과 우수 중소기업의 상품 비중은 87%를 차지한다. 아울러 수출 대상 국가도 아시아를 넘어 북미와 유럽, 남미 등을 포함한 총 25개 국가에 달한다.

최근에는 'K-수제맥주'로 맥주의 본고장 독일 시장에 도전해 나섰다. 수출 품목

은 편의점 GS25가 국내 수제맥주 브루어리와 협업해 랜드마크 시리즈로 선보인 수제맥주 '경복궁', '성산일출봉' 등이며 이달 말 수출 때 독일 현지 마트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수제맥주에 이어 막걸리, 소주 등 한국 전통 주류를 유럽 및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 수출하는 사업도 예정돼 있다.

수출 뿐만 아니라 편의점 사업도 순조롭다. 2018년 호치민에 처음 진출해 지난 3월 100호점을 돌파한 GS25가 베트남에서 현재 운영 점포는 117점이다. 지난해만 늘린 점포 수는 33개로 베트남 내 편의점 브랜드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올해부터는 영점 중심이던 베트남에서 가맹점 사업을 본격 전개하고, 북부 지역인 하노이까지 범위를 넓혀 연간 100개점 이상 공격적인 출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CU가 먼저 발을 내딛은 몽골에도 진출하며 2번째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 몽골의 제2위 업체인 손콜라이 그룹과 마스터프랜차이즈 형식이다. 지난 6월 기준 10개 점포를 운영 중으로 2025년까지 500점 오픈이 목표다.

이마트24도 지난달 현지 기업인 유나이티드 프론티어 홀딩스(United Frontiers Holdings)와 손잡고 이마트24 말레이시아 1호점을 오픈하며 해외 진출을 알렸다. 목표는 올해 말까지 10개점, 5년 내 300개 점포이다. 남주현 기자 jooh@

## 가전양판점 "폭염이 반갑다"

무더위 속 에어컨 판매량 전년 대비 2배 '경중' 전자랜드·롯데하이마트 7월 한달간 할인 행사

전국적으로 3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며 '폭염 주의보(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할 경우)'에 이어 일부 지역에선 '폭염 경보(같은 기간 35°C 이상)'가 발효되고 있다. 올 여름 더위는 '역대 최고 더위'로 불리는 1994년과 2018년에 버금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객에게 최대 36개월 장기 무이자 혜택을 준다.

가전양판점 업계는 폭염특수 기대감이 한층 커졌다. 이달 초부터 일찌감치 에어컨 할인 판매에 들어간 업계는 올해 더위 특수로 에어컨 판매 실적이 예년에 비해 크게 올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콕족'이 늘고, 집이 아니더라도 실내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점도 에어컨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15일 전자랜드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의 에어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

이는 습한 날씨가 이어지던 직전주인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와 비교해도 44%가량 증가한 수치다. 전자랜드는 "12일 전국에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서, 갑작스러운 폭염 소식에 냉방 가전을 아직 구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급하게 에어컨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전자랜드는 무더위에 지친 소비자들을 위해 7월 한 달간 에어컨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매장에서는 100만 원 이상 스탠드형 에어컨을 전자랜드 삼성 제휴카드 또는 스페셜 롯데카드로 결제한

전자랜드 공식 온라인몰에서는 에어컨을 할인 판매하는 '올여름 에어컨! 가자! 전자랜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브랜드별로 에어컨 추천 모델을 할인 판매하며, 구매 시 최대 10만 원의 온라인몰 쿠폰을 제공한다.

이날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에어컨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늘었다. 이달 들어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여름 휴가를 집에서 보내는 '홈박스족'도 함께 늘면서 에어컨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편, 롯데하이마트는 7월 한 달간 '2021 에어컨 대전' 행사를 진행 중이다. 전국 롯데하이마트 매장에 방문해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75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행사 카드에 따라 최대 36개월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이마트 "달콤한 사인머스켓 드셔보세요" 이마트가 사인머스켓의 계절을 맞아 본격 판매에 나선다. 이마트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사인머스켓(국산, 500g, 팩)'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1000원 할인된 1만490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는 우수 산지와 협력하고 철저한 당도 선별을 통해 여름 장마철에도 15브릭스(Brix) 이상의 고당도 사인머스켓만을 엄선해 판매한다. 사진제공 이마트

## KT&G '보험시가' 라인 재정비 나서나

'슬림핏 스키니' 등 지난해부터 4개 제품 단종

KT&G의 '보험 시가 슬림핏 스키니'가 단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시가 라인은 윈, 레종, 예세 시리즈와 더불어 KT&G의 4대 담배 브랜드 중 하나다.

15일 KT&G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보험 시가 슬림핏 스키니가 단종됐다. 출시 2년여만이다. 보험 시가 슬림핏 스키니는 잔여 재고물량으로 올해까지 시중에 유통됐으나 지난달을 기점으로 시장에서 완전 소진됐다. 보험 시가 슬림핏 스키니는 '보험(BOHEM)' 브랜드 중 가장 얇은 두께를 자랑했다.

'보험 시가'는 시가업을 담은 국내 최초의 담배로 2007년 처음 출시했다. 이후 2015년 길이 100mm 슈퍼슬림 담배인 '보

험 시가 슬림핏' 브라운, 화이트를 내놓으며 보험 제품군 내 얇은 담배 시리즈의 서막이 열렸다.

일각에서는 보험시가 슬림핏 스키니에 앞서 '보험 파이프 발렌티'가 단종되면서 KT&G가 보험시가 라인 재정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슬림핏 시리즈는 2015년 3월 출시 이후 해마다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상승해, 2018년 '보험 시가 슬림핏 스키니'가 출시되기까지 총 32억 개 이상 팔려나간 KT&G의 대표적인 히트 브랜드 중 하나였다.

'보험 파이프 발렌티'는 서울권을 제외하고 충청, 강원 등 특정 지역에서 한정적



으로 판매해온 브랜드다. 보험시가 파이프 발렌티와 보험시가 슬림핏 스키니가 잇달아 단종되면서 현재 보험시가 브랜드는 총

13종으로 운영 중이다. 최근 단종된 보험시가 슬림핏 스키니는 2018년 출시된 제품으로 권력 두께 지름 5.4mm 초슬림 제품보다 0.7mm 더 얇은 점을 스펙으로 내세웠다.

회사 측은 "보험시가 슬림핏 스키니는 판매 부진으로 단종됐다"며 확대 해석을 우려했다.

KT&G의 단종 제품은 보험시가 라인뿐만이 아니다. 올 들어 심플에이스 5, 아프리카 아이스 쿨라 등도 시장에서 사라졌다. 김해지 기자 heyji@

## 오뚜기, 13년 만에 라면값 평균 12% 인상

내달부터 '진라면' 684원→770원

오뚜기가 8월 1일부로 진라면 등 주요 라면 가격을 평균 11.9%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4월 이후 13년 4개월 만이다.

대표 제품인 진라면(순한맛·매운맛)은 684원에서 770원네옴으로 12.6%, 스텝면이 606원에서 676원으로 11.6%, 육개장(용기면)이 838원에서 911원으로 8.7% 인상된다.

오뚜기는 라면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설비 자동화, 원료 및 포

장재 등의 원가 절감, 유틸리티 비용 절감 등 제품 가격 인상을 억제해 온 자체적인 노력을 전과해 왔다. 그 결과 2008년 4월 라면 가격 인상 이후 13년간 라면 가격을 동결해 왔으나, 최근 밀가루, 팥유와 같은 식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뚜기는 단순히 원가 개선 목적만이 아닌, 설비 투자 및 인원 충원 등을 통해 더욱 좋은 품질개발과 생산으로 인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김해지 기자 heyji@

# THE AtG



# ‘찬밥 신세’ 지주사, 경기 회복 기대감에 재조명

경영 환경 불확실성 커지며 대응전략 수립·투자형 전환  
“사업주 분할-지주회사 역할의 전략적 다변화 이어질 것”

주요 기업들의 지배·사업구조 개편 작업은 진행형이다. 현대차그룹은 10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A→B→C→A 식의 연결 고리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 고리를 갖고 있는데, 이를 바꾸려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삼성그룹은 총수 일가의 고 이근희 회장의 지분 상속이 마무리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한층 강해졌다. 다른 기업들도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나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체질 개선에 분주하다. 그 중심에는 지주사가 있다. 하지만 지주사에 투자한 개인들은 불안하다. 몇몇 그룹은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등의 공격을 받았던 학습효과 때문이다. 현재의 경영권 다툼이나 외부 세력의 공격은 주가에 호재

다. 그러나 지나치게 주가가치가 두드러지다 보면 기업의 미래를 위한 뒷전인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순수지주회사가 그룹 차원의 불확실성 대응 전략을 짜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혁신 산업 투자에 나서는 등 투자형으로 바뀌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주사들의 주가는 엇갈린다. SK는 27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 주가는 지난 4월 21일 장중 30만8000원을 찍은 뒤 박스권에 갇혀 있다. 다른 주요 지주사도 마찬가지로 2분기부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삼성그룹의 지주사 격인 삼성물산도 13만 원대에 묶여 있다. 한진칼을 바라보는 투자자의 시

주요 지주사 주가변동 추이 (단위: 원)

기업명	1월 4일	7월 15일	주가 변동률
두산	52000	115000	121%
네오위즈홀딩스	16400	31350	91%
미원홀딩스	80900	130000	61%
삼양홀딩스	73800	103500	40%
오리온홀딩스	12900	16650	29%
휠라홀딩스	42850	53000	24%
현대그린푸드	8760	10250	17%
CJ	92100	104000	13%
동아쏘시오홀딩스	123500	129000	4%
한화	29350	30650	4%

※ 출처: 한국거래소

선은 시큰둥하다. 지난 4월 11만1000원대에서 내리막길이다. 이날 주가는 6만4800원에 마감했다. 지난 5월 12만 2500원까지 치솟았던 LG는 9만9400원에 장을 마쳤다. 두산은 11만5000원을 찍었다.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재무구조 개선 과정을 밟고 있는 두산그룹이 구조조정 효과로 재평가 받을 것이라 기대 때문이다. 지난해 1만1850원까지 추락했던 한화는 3만대로 올라섰다. CJ는 지난해 3월 5

만2500원보다 두 배 가량 오른 10만 원대를 기록했다. 중견 지주사인 네오위즈홀딩스(이하 올해 주가상승률 91%), 미원홀딩스(61%), 삼양홀딩스(40%), 오리온홀딩스(29%), 휠라홀딩스(24%), 현대그린푸드(17%) 등도 상승세다. 전문가들은 지주사들이 지속 성장을 위한 신사업 발굴과 사업 구조 조정 같은 포트폴리오 조정에 적극적이어서 주가도 재평가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알짜 자회사의 지분가치나 배당은 덩이다. 이상현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경기 재개(re-opening) 기대감이 일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기업들의 실적반등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이는 곧 여러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이하 지주사)들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껏 국내 지주사들은 시장에서 푸대접을 받아왔다. 성균관대 경영학부 박사

과정 박진 씨 등이 쓴 논문 ‘한국주식시장의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에 따르면 상장된 지주사의 평균 시장가치는 장부가치의 65%(시장가치-장부가치 비율)에 그쳤다. 반면 지주사가 아닌 기업들은 같은 기간 시장가치 평균값이 장부가치의 235%에 달했다. 또한 지주사 주가는 자회사보다 낮게 평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지주사 저평가는 지주사 체제를 취하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 전체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면서 “저평가는 지주사에만 국한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일본의 비금융 지주사 125곳을 선정해 분석한 결과, 시장가치가 장부가치보다 모두 높게 나왔다.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사업주 분할-지주회사 역할 다변화”의 전략적 변화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며 “지주사들이 펼치는 미래에 투자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아 기자 ljh@

## 나재철 “지속가능 금융 생태계 조성 힘쓸 것”

금투협회장 온라인 간담회  
“비과세 상품’ 투자형 ISA 필요  
상품위험등급 분류방안도 개선  
금소법 안착 위한 준비 마무리”



“노후 소득보장기능이 거의 상실된 퇴직연금의 제도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하루빨리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해야 한다.” 나재철(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은 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연초부터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사전지정운용 상품 유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그는 “사전지정운용 제도가 도입되면 퇴

직연금을 유지만 하고 가입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는 나 몰라라 하는 시장 구조도 맞춤형 서비스와 우수한 상품으로 경쟁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다”며 “수익률 경쟁에서 뒤처진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ISA 제도 개선에도 계속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풍부한 유동성을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에 활용하려면 장기투자자들에게 획기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며 “금융선진국처럼 금융투자상품 전용 비과세 상품인 투자형 ISA를 도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올 초 도입된 투자중개형ISA는 투자와 절세 혜택이 맞물리면서 4개월 만에 구좌수 80만 개를 넘어섰다. 나 회장은 하반기 계획으로 투자자 편의 증진이 가능하도록 공모 시장 활성화를 위

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인 펀드 운용이 가능한 규제 개선, 외화표시MMF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금융투자업의 특성과 업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한 바 있다. 또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신규제도의 정착을 위해 협회규정과 표준투자권유문건을 개정하는 등 1차 규정 정비 작업을 마쳤다. 나 회장은 “하반기에는 투자성향 파악 및 상품위험등급 분류방안을 개선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신설하는 등 금소법 안착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앞서 지난 3월 협회는 리츠 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금융투자자 교육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10월부터 MZ세대를 비롯한 새내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접목한 ‘금융투자 TEST’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말을 기점으로 나 회장은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이인아 기자 ljh@

## ‘아이폰13’ 초도물량 늘리자 국내 IT기업도 몸값 오른다

생산량 20% 확대한 9000만대  
LG디스플레이·SK하이닉스 등  
OLED패널·배터리사 수익 증대

새로운 사과(애플 아이폰 13)에 대한 기대가 국내 IT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애플은 올해 9월 출시하는 아이폰13 초기 생산량을 9000만대로 기존 대비 20% 올려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보다 1.38% 상승한 8만60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12만3500원에 마감했다. LG디스플레이는 1.51% 상승한 2만3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LG이노텍은 7.61% 급등한 24만500원을 기록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애플이 아이폰13 하드웨어 기능은 강화(카메라, 디스플레이)하는 반면 전작과 유사한 가격정책을 펼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소비심리 회복이 기대되는 북미와 유럽에서의 판매 자신감을 반영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김 연구원은 “애플은 아이폰13용 OLED 패널 초기 주문량도 1억2000

만 대로 기존 대비 20% 확대한 것으로 예상되며, OLED 패널 공급은 삼성디스플레이(SDC) 7000만대, LG디스플레이(LGD)가 5000만 대를 공급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이폰13 디스플레이는 터치가 일체형으로 변화하며 원가효율화가 가능하고 LTPO(저온다결정산화물)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돼 디스플레이 화질과 응답 속도가 개선(120Hz)되는 동시에 저전력 구현이 가능해져 배터리 효율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14일 애플 주가는 아이폰13 판매증가 기대감으로 전일 대비 2.4% 상승한 149.2달러(시가총액 2900조 원)에 근접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며 “애플은 아이폰 교체주기 도래와 내년 메타버스용 XR기기 출시, 2024년 애플카(Apple Car) 출시를 통한 전기 자율주행차 시장 진입 등이 추정돼 탄탄한 미래 성장 로드맵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애플은 연간 2억대가 넘는 아이폰을 생산하는 ‘큰손’인 만큼 국내 정보기술(IT) 부품업계에 정진호가 켜진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애플이 향후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박기영 기자 pgy@

## 아시아나항공 16일 주식거래 재개

상장 적격성 심의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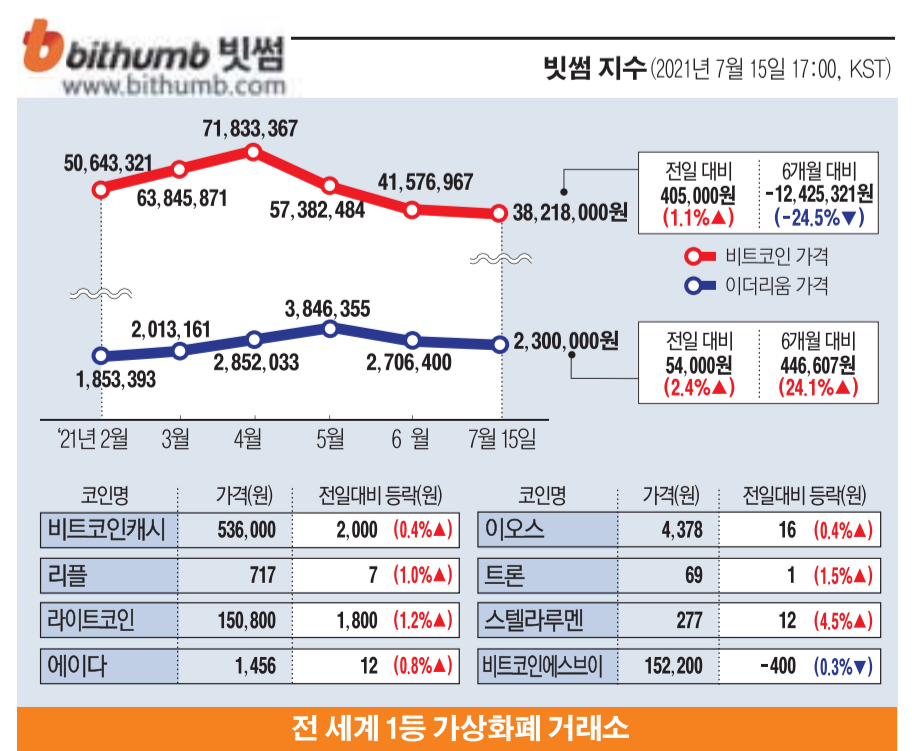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아시아나항공이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아시아나HDT도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 이에 3개사의 주식 거래는 정지 51일만인 16일 재개된다.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의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1만7200원, 시가총액은 1조2799억 원이다. 한국거래소는 5월 26일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기소에 따라 아시아나항

공과 자회사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인지를 검토하며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하고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심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식 거래 정지 기간 거래 재개를 위한 소명에 집중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거래소에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을 분리해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적 지배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하나금융투자 이은형 대표  
‘고고챌린지 캠페인’ 동참

하나금융투자는 이은형 대표가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확산을 위해 고고챌린지(Go! Go! Challenge)에 동참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일회용 컵 이별하고, ESG 실천에 애쓰자”며 “하나금융투자도 일상에서 플라스틱 줄이기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다음 주자로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추천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 ‘복합단지·부지개발 호재’ 강서구 아파트 신고가 행진

‘마곡엠밸리 7단지’ 84㎡형 한 달새 15억→17억  
서울내 최대 규모 복합시설 개발 이슈로 상승세  
마곡동 오르자 내발산·가양동 ‘집값 키 맞추기’

서울 강서구 일대 아파트 매매시장이 심상치 않다. 잇단 개발 호재에 힘입어 아파트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많으나 매물이 달려 부르는 게 값일 정도라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강서구에선 마곡 마이스(MICE: 기업 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단지 착공과 옛 CJ공장부지 개발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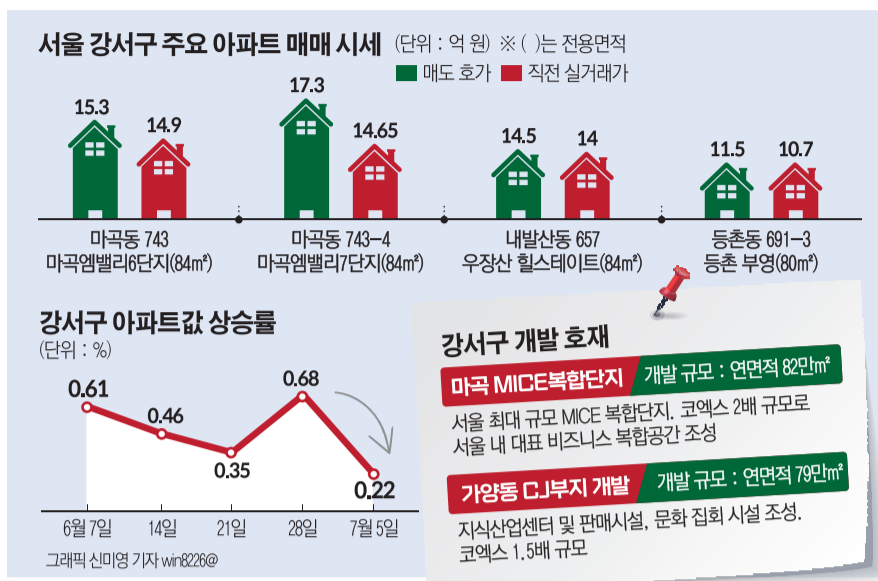
강서구 마곡동 마곡엠밸리 6단지 전용 84㎡형 매매 시세는 최고 15억3000만 원에 형성돼 있다. 현재 같은 평형대에 남은 매물은 모두 15억 원 이상을 호가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같은 평형은 13일 14억9000만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마곡지구 내 대표 아파트인 마곡엠밸리 7단지 매매 시세는

6단지보다 더 비싸다.

7단지는 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과 가깝고 마곡지구 내에서도 중심에 있어 선호도가 높다. 이단지 전용 84㎡형 시세는 17억3000만 원에 형성됐다. 지난달 같은 평형이 14억8000만 원에 신고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2억5000만 원 더 오른 셈이다.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마곡동 일대 아파트값을 끌어올린 요인이라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마곡동 767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는 서울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의 두 배 크기(연면적 82만㎡)로 컨벤션센터와 호텔, 판매·업무시설이 들어선다. 공사를 맡은 롯데건설은 3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이달 착공



에 들어갔다. 2024년 준공 예정이다.

마곡지구와 가까운 가양동 옛 CJ제일제당 부지 개발사업도 순항 중이다.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에 있는 이 부지에는 연면적 79만㎡ 규모의 복합쇼핑몰과 업무·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운영 중인 신세계프라퍼티

가 CJ제일제당 부지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양동 CJ부지에 스타필드가 들어올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마곡동 한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집주인이 부르는 호가 그대로 거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그 동안 강서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감이 없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선 집값이 너무 뛰어서 놀라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귀띔했다.

마곡·가양동 아파트 매매값이 크게 오르자 인접 지역까지 집값 키 맞추기에 나섰다. 마곡지구와 맞닿은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인근 내발산동 우장산 힐스테이트 전용 84㎡형은 최고 14억5000만 원을 호가한다. 지난달 20일 실거래가(14억 원)보다 한 달 만에 5000만 원 더 올랐다.

등촌동 등촌 부영아파트 전용 80㎡형 시세는 11억5000만 원 선이다. 같은 평형 직전 실거래가는 7일 거래된 10억7000만 원으로 일주일 만에 8000만 원 오른 셈이다.

이 단지는 가양동 CJ제일제당 부지 길 건너편에 있어 개발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등촌동 B공인중개 관계자는 “매수 문의는 많은데 매물은 없어 호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며 “CJ부지 개발 등 호재가 많은데다 아직 마곡지구 개발도 진행 중이라 집값이 더 오를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노원구 황금입지’ 상계주공3단지 재건축 속도

2000가구 밀집 초역세권, 안전진단 돌입하며 매수세 급증

서울 지하철 4·7호선 노원역 초역세권 알짜 단지인 상계주공3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절차에 돌입했다. 상계동 노후 단지들이 잇따라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으면서 이 일대 아파트값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정비업체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3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받기로 했다. 지난 3월 말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를 통과한 지역 4개월 만이다.

상계주공3단지는 1987년에 준공한 아파트로 2213가구로 이뤄졌다. 지하철 7호선 노원역이 7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2000가구 넘는 매머드급 단지인데다 입지 역시 좋아 상계주공 16개 단지 중에서도 최고 알짜로 꼽힌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예비안전진단 통과 직후 한 달만에 정밀안전진단 예치금을 모두 모을 정도로 재건축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노원구 일대에선 최근 준공 30년을 넘은 주공아파트 대부분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단지외 붙어 있는 상계주공2단지가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현재 상계주공 16개 단지 중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1,2,3,9,11,13,16단지 등 7개 단지다. 그 외 6단지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을 받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5단지는 정비구역 지정을 이미 완료했다. 상계동에선 주공아파트 외에도 한양아파트와 미도아파트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노후 단지 대부분이 잇따라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에 나서면서 몸값도 뛰고 있

다. 노원구는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지난 4월부터 13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서울에서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4%를 넘어서는 곳은 노원구가 유일하다. 이번 주(12일 기준)까지 노원구 아파트값의 누적 상승률은 4.39%다.

최근 상계주공3단지에선 시간 5억 원대 후반에서 거래되던 전용 37㎡형이 지난달 7억 원에 팔렸다.

현재 시세는 7억~7억3000만 원 선이다. 지난해 최고 8억2000만 원에 거래된 전용 73㎡형은 지난달 10억~10억3500만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을 대표하던 노원구에선 이제 10억 원 안팎을 오가는 아파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상계동 H공인 관계자는 “시세를 높여져도 관심을 보이는 매수자들이 많다 보니 집주인들이 호가를 계속 올린다”고 전했다.

상계동 재건축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리는 건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압구정·여의도·목동과는 달리 이곳이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묶이지 않은 영향도 컸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매매가 비교적 자유로워지자 가격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오르는 것)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북가좌6구역 재건축 수주 DL이앤씨 vs 롯데 ‘2파전’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 수주전이 ‘2파전’으로 압축됐다.

DL이앤씨(옛 대림산업)와 롯데건설이 맞붙게 됐다. DL이앤씨는 단지 맞춤형 브랜드 ‘드레브 372’를, 롯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LE-EL)’을 내걸고 수주전에 뛰어들 태세다. 올해 하반기 서울의 첫 대형 정비사업 수주전인 만큼 누가 승자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정비업체에 따르면 북가좌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이 최종 참여했다. 앞서 6일

며 홍보에 나섰다. DL이앤씨는 건설·조경 디자인·일러스트레이트 등 분야의 세계적 거장 7인과 협업을 진행하고, 100% 판상형 등 다양한 특화설계를 제시했다. 앞서 DL이앤씨 북가좌6구역 조합에 솟아오른 나무의 형상을 한 유선형의 측벽 시그니처 디자인과 최고급 알루미늄 패널로 구현된 웨이브파사드, 조화롭게 배치된 커튼월 록 적용을 제안한 바 있다.

롯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로 승부수를 띄웠다. 롯데건설은 서울 한강변·강남권 이외 지역에는 적용된 적이 없는 르엘을 북

서울 하반기 첫 대형정비사업 ‘거장협업’ vs ‘특화설계’ 각축

가좌6구역에 첫 적용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각오다. 롯데건설은 불광천과 DMC역이 연계된 특화설계를 통해 외관부터 다른 아파트들과는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아울러 DMC롯데쇼핑몰 개발사업과 연계한 ‘DMC 시그니처 프로젝트’와의 연계성도 강조했다.

북가좌6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짜리 197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800~9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올 예정이다. 시공사는 8월 14일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된 수주 1위, 특화설계 등을 내세우

다. 이동욱 기자 toto@

## 아파트값 뛰자 오피스텔값도 ‘경풍’

전세물량 부족현상 동반상승  
1분기 대비 전국 0.37% 올라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오피스텔 시장으로도 옮겨 붙었다. 아파트값이 치솟자 오피스텔 매매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37% 올랐다. 수도권은 0.43% 올랐다.

지난해 3분기 0.02%로 상승 전환한 뒤 4분기 연속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 서울 0.07%, 인천 1.03%, 경기 0.64% 올랐다. 특히 인천이 1% 넘게 오르면 강세를 보였다. 한

국부동산원 측은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따라 교통 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연수구, 상대적으로 저평가 인식이 있고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서구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자 대체 가능한 중대형 오피스텔과 교통 편의성이 우수한 역세권 중심으로 올랐고, 경기는 교통 호재가 있는 부천·의왕시와, 접근성이 양호한 수원 및 용인권을 등 위로 상승했다.

지방은 0.12% 올랐다. 대전(0.58%)·광주(0.35%) 등이 많이 올랐다. 울산은 0.38% 하락했다. 오피스텔 전셋값도 상승세다. 전국 기준으로 2분기에 0.42% 올랐다. 서울

(0.26%)은 아파트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장기화하며 정주 여건이 양호하거나 주거 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인천(0.61%)과 경기(0.61%)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대체 수요가 중대형 오피스텔에 유입되며 상승했다.

2분기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전국 2억776만 원, 수도권 2억2182만 원, 지방은 1억4964만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2억5354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4.76%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4.61%, 5.39%를 나타냈다. 서울은 4.33%의 수익률을 보였다. 지역별로 대전 6.94%, 광주 6.20%, 세종 5.42%, 부산 5.26% 순으로 높았다. 울산은 4.29%로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 견제 장치 마련해야”

## ⚠ 가상화폐거래소 주의보

〈글 쓰는 순서〉

- ① 살길은 파산? 면책권 악용
- ② 물리면 끝… 피해 회복 난망
- ③ ‘기획 파산’의 뒷 벌집계좌
- ④ 사기 피해 예방 ‘이것’ 지켜라〈끝〉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따라 가상화폐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형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의 돈 떼먹고 무더기로 폐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형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세와 수수료, 무료 코인 이벤트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지만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만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의특별위원회 기획위원장을 역임한 가상화폐 전문

**박주현 황금률 대표변호사 인터뷰**

“기획 파산 계획 운영 범죄자들 소형 거래소끼리 ‘코인 돌리기’ 회사 예치금 일정 이상 요구해 고객보호 가능한 곳만 운영해야”

가 박주현(사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15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먹튀 거래소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가상자산 아노미’ (행위를 규제하는 공통적인 가치나 도덕 기준이 없는 혼돈 상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기획파산을 계획하고 거래소를 운영한 범죄자들이 소형 거래소를 5개까지 만들어 코인과 금전 돌리기를 했다”며



“자연히 피해자와 피해 금액 규모가 많이 늘어났는데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감시와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회장과 대표이사, 임원진이 범죄를 공모해 특정 회사의 코인을 만들어 상장시키고 ‘펌핑’을 통한 가격 인상을 차익을 본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블록체인 기술이 더해져 과거 조희팔의 다단계 사기, 폰지사기를 능가하는 수법으로 피해 규모도 더욱 크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외제차 제공, 에어드롭 등 고객에 대한 유인책을 과도할 정도로 사용하는 곳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다소 과도할 정도로 보이는 이벤트는 심증팔구 사기라고 보면 된다”며 “자본금 500만 원에 불과한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스킴코인을 만들어 사기를 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법의 영역에 포섭되기가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되는 형사 영역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법리적으로도 고민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법원 판결을 보고 원통함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화폐 범죄를 방지하고 투자자

를 보호하기 위해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하는 법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거래소 해킹이나 투자사기, 시세조종 등 명백한 불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회사 예치금을 상당 수준 요구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곳만 거래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객은 거래소 공시 등을 캡처하고 직원과의 대화를 녹취해야 하며 자신의 거래내역도 보관해야 한다”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소의 과실이나 고의, 위법성과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돈이 물리는 곳에는 위험한 불법도 도사리고 있다”며 “자신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말고 잘 분석하고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종용 기자 deep@



## 견인되는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서울시가 15일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을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으로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뉴시스

## 방역 ‘적극’ 부동산 ‘신중’ 새 서울 청사진

### 오세훈 시장 취임 10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1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오 시장은 그동안의 시장공백을 메우고 서울의 새 밑그림을 그리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오 시장은 확산과 진정을 반복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시가 관리하는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전역에 처음으로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 시장은 2030 확진자가 늘자 청년층 조기 집중도 제한했다. 다만 오 시장이 취임 초 제시한 업종·업체별 실정에 맞는 거리두기인 ‘서울형 상생방역’은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게 됐다.

오 시장 취임 후 10년간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졌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시키면서도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을 수립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규제위주 주택정책에서 탈피하기 위해 은마, 압구정 등 18개소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시의회 110석 중 민주당이 101석인 압도적 여소야대 국면을 소동으로 돌파하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은 오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15일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백신 보관실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

장이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박원순 색깔 지우기’라며 반발했고,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울리’와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에 반대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시의원들을 직접 찾아 양해를 구하고 설명했다. 시의회도 내부 격론을 거치기는 했으나 오 시장을 선택한 민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당초 안보다 줄이는 정도로 마무리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추락한 도시경쟁력, 서울경제 지표를 바꾸겠다고 ‘서울비전 2030 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는 산업과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략목표와 정책과제를 고민 중이다. 오 시장은 조직체질 개선을 위해 성비위에 대한 ‘윈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 ‘어제는 합격 오늘은 불합격’ 한심한 서울시교육청

“담당자 실수로 47명 당락 뒤바뀌어” 반년새 두번째… 교육계 “기강 해이”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도 9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뒤바꿔 잘못 공고해 정정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7개월 만에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교육계 일각에선 서울시교육청의 기강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2021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정정 공고’를 내고 전날 발표한 필기시험 합격자에 오류가 있어 정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달 5일 치러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57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이번에 정정 공고된 지원자는 모두 47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합격이라고 발표한 20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 처리한 27명을 추가 합격 처리했다. 애초 합격 처리했던 과목 과락자 등을 탈락시키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해당자와 동점자 등을 합격시켰다.

이로써 2021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는 580명으로 정정 전과 비교해 7명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필기시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 답안이 담당자의 실수로 포함돼 평균점이 낮아지고 표준편차가 커

져 조정점수에 변동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합격자 발표 후 해당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결시자를 제외해 처리한 결과 평균점과 표준편차의 변동으로 합격선이 변경됐고 이에 당초 합격자 중 불합격 처리된 인원은 20명, 추가로 합격 처리된 인원은 27명”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도 공립중등학교 임용시험 1차 합격자를 반복했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 등 별도시험장 응시생 6명의 점수가 뒤늦게 반영되면서 1차 시험에서 합격자 명단에 들었던 응시생 7명이 취소통보를 받았다.

손현경 기자 son89@

## 완성차 노조, 하투 이번 주가 ‘분수령’

자동차 업계의 ‘하투(夏鬪)’가 분수령을 맞았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교섭에 복귀한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20일까지를 집중교섭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미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 대신 교섭을 우선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노사는 8월 초로 예정된 여름 휴가 이전에 교섭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선 이번 주 내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와 최종 조

인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상대적으로 교섭을 늦게 시작한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는 사 측에 구체적인 제시안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 집행부는 신규인원 총원과 전기차 핵심 부품의 국내 공장 유치를 강조하며 5일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기아 노조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본급을 동결한 만큼, 올해 교섭에서는 기본급을 9만9000원 인상하고 지난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는 13일 사 측의 1차 제시안에 반발하며 교섭을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곧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할 전망이다. 향후 교섭에서 파업 등의 수단을 동원해 사 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조합원 76%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교섭도 마무리 짓지 못한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는 교섭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다음 주를 집중 교섭 기간으로 정하고 교섭을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이다. 교섭 이후에는 금속노조 체제 전환 논의도 다시 시작한다. 유창욱 기자 woong@

##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손배소 잇단 패소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준수 부장판사)는 인터파크 회원 50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익명의 해커로부터 공격을 당해 1000만 명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인터파크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정보통신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4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총 1030만 명으로 피해자들은 인터파크를 상대로 꾸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이번 소송뿐 아니라 앞선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연달아 패소했고, 당시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각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해킹 사고로 유출된 회원정보에는 원고들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피고가 정보통신방법을 위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 팬데믹에 지친 마음 달래줄



## 서울 한복판 ‘예술 오아시스’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하늘이 맑다. 덕수궁 돌담길도 밝아 상큼하다. 돌담길 따라 늘어선 나무들을 흔드는 바람결엔 뜻밖에도 향기까지 묻어 있다. 이런 흡족한 기분의 반향일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을 찾아가는 길목에서 느껴지는 서울이 모처럼 유쾌하다. 고적한 정취까지야 아니지만 싱그러워 삼삼한 운치를 맞본다. 미술관은 돌담길 모퉁이에 있다. 기분 좋게 다가갈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한 미술관이다.

서울시립미술관 초입은 온통 초록이다. 크고 작은 수목들로 빼곡하다. 숨쉬기 좋은 작은 숲이며, 물먹은 소금자루처럼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휴가분해될 수 있는 소공원이다. 소음과 미세먼지와 풍문이 들끓는 서울 한복판에서 이만한 숲이라도 만날 수 있는 건 요행에 가깝다.

이 소공원은 조각 전시장으로 쓰인다. 작가들의 작품이 산재하다. 저기 숲에 불타오르는 것처럼 붉디붉은 꽃 한 송이 솟아 있다. 최정화의 설치 작품 ‘장미꽃 인생’이다. 그는 싸구려 물건의 대표적인 플라스틱으로 작품을 만드는 데 이골이 났다. 이 ‘플라스틱 연금술사’는 플라스틱 조형물로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고 위계를 깬다. 불온한 물질문명에 판죽을 걸며, ‘싸구려’로 표상되는 모든 낫고 만만한 것들의 꿈과 상상에 날개를 부여한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시가 펼치는 미술운동의 전진기지다. 시의 거대한 지원을 뚝으로 삼았을 이 미술관은 공립 기관이 속성처럼 지니기 쉬운 관료주의의 파분한 틀에서 벗어나 서울특별시민들을 위한 특별 문화 공간으로 부상하고자 하는가. 표방하듯 ‘서울을 보듬는 모선(母船) 미술관’이다. ‘현대미술을 매개로 활력과 매혹이 가득한 서울과 세계 도시를 연결하겠다’는 희망을 천명하고 있다.

이 미술관은 1988년 구 서울고등학교 건물을 고쳐 입주, 개관하면서 발동을 걸었다. 이후 초기 10여 년간은 난항이었다. 학예 인력은 물론 관장조차 없었다. 1999년에야 전문 관장 체제를 구축했으며, 2002년에 현재의 위치인 구 대법원 자리로 이



전, 건물을 새로 지어 재개관했다. 당시의 신축 상황이 흥미롭다. 일제강점기 때 경성재판소로 지어졌다가 광복 후 줄곧 대법원 청사로 쓰였던 원래의 건물은 근대 고딕 양식과 미국식 모던 빌딩 스타일을 절충한 건축으로 보존 가치를 평가받았다. 이 근대 건축의 전면 아치형 현관 부분만 그대로 놔두고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을 붙여 지은 게 지금의 서울시립미술관 본관이다. 웅장한 맛과 장식의 멋을 느낄 수 있는 현관 파사드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를 이루고 있다.

미술관 내부 중앙홀에 들어서자 크넓은 공간이

**덕수궁 돌담길 옛 대법원 청사 건물  
“현대미술 매개로 세계 도시와 연결”  
서울시 미술운동의 전진기지 역할**

**1층 전시실 ‘기후위기’ 주제 기획전  
2·3층선 주재환·호민父子 전시회  
‘저장’ 천경자 대표작 만나볼 기회도**

펼쳐져 시원하다. 유리로 만든 천장과 벽면의 창으로 자연광이 물살처럼 들이친다. 인위를 최대한 제한한 조명 기법을 구사했다. 빛은 자유롭게 들이쳐 벽면을 하얗게 표백하고, 빛이 침투하지 못한 공간엔 잔잔한 음영이 깔린다. 광폭의 층계와 직선의 교직으로 이루어진 난간의 간결한 구성도 인상적이다. 군더더기 다 털어내고 끝자만 담아 기능성과 미를 동시에 도우었다.

1층 전시실에선 현재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전이 열리고 있다. (8월 8일까지)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전시회다. 기후위기로 가속되는 생태 파괴의 진상과 인간의 무신경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기획전이다.

2층과 3층에서는 ‘호민과 재환’전이 진행되고 있다. (8월 1일까지) 영화 ‘신과 함께’의 원작 웹툰 작가로 널리 알려진 주호민(40)과 그의 아버지 주재환(81) 화백이 펼치는 2인전이다. 그런데 이 전시

회의 분위기가 후끈하다. 부자가 의기투합해 함께 작품을 들고 나온 것부터 이색적이지만, 두 사람의 작품이 뽀는 재미와 개성이 각별해서다. 특히 노화백 주재환의 그림이 인기 ‘짱’이다. 그의 그림은 쉽고 기발하며 번뜩인다. 유희와 유희, 심드렁함과 너스레로 별별 작품을 다 만들어냈다. 오잉? 이것도 그림인가? 관람객은 평소 보지 못한 작품에 머리를 득득 긁으며 난처해하다가 아하! 찬탄한다. 주재환이 발신한 메시지가 유리창을 뚫고 날아온 돌맹이처럼 돌연하고도 신속하게 관람객의 심장으로 박혀 들어 급기야 의표를 찌러서다. 그는 물구나무 선 세상을 물구나무 선 그림으로 뒤집는다. 세상의 꿈과 이와 잘난 권위를 풍자로 전복한다.

주재환의 작품 ‘계단을 내려오는 뱀비’를 볼까. 마르셀 뒤샹의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2’를 패러디한 이 그림엔 계단에 서서 소변을 갈기는 남자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계단 상층에서 발사된 오줌똥은 아래층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데,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굵어진다. 계급사회의 질곡과 잔혹을 까발리는 은유다. 뒤샹의 다다이즘 그림을 향해 내지른 어퍼컷이기도 하다. 이렇게 주재환의 쉬운 그림은 선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회 이슈에 하고 싶은 말 다 하지만 심각하게 품 잡진 않는다. 따뜻한 감성으로 비튼다. 재미와 생각거리를 동시에 제공한다. 대부분의 작품이 구작(舊作)인 건 아쉽다. 회고전 성격의 전람회에 보면 되겠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천경자(1924-2015)의 그림 93점을 소장하고 있다. 모두 작가가 기증한 작품이다. 이 가운데 20여 점을 골라 ‘영원한 나르시스트, 천경자’라는 타이틀의 전시회를 펼치고 있다. 강렬하고 화려한 색감, 초현실로 비상하고자 하는 내면적 갈구, 몽환과 이국 정서, 슬픔과 우울의 정조를 일관되게 표출한 그의 작품을 다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천경자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내 전설의 슬픈 22페이지’도 만날 수 있다. 혀를 날름거리는 뱀 네 마리를 화려처럼 머리에 두른 자화상이다. 팀 하나! 이 미술관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시립이라서.

글/박원식 객원기자 tititoto@hanmail.net  
사진/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 ‘모자람’ 없는 ‘자람’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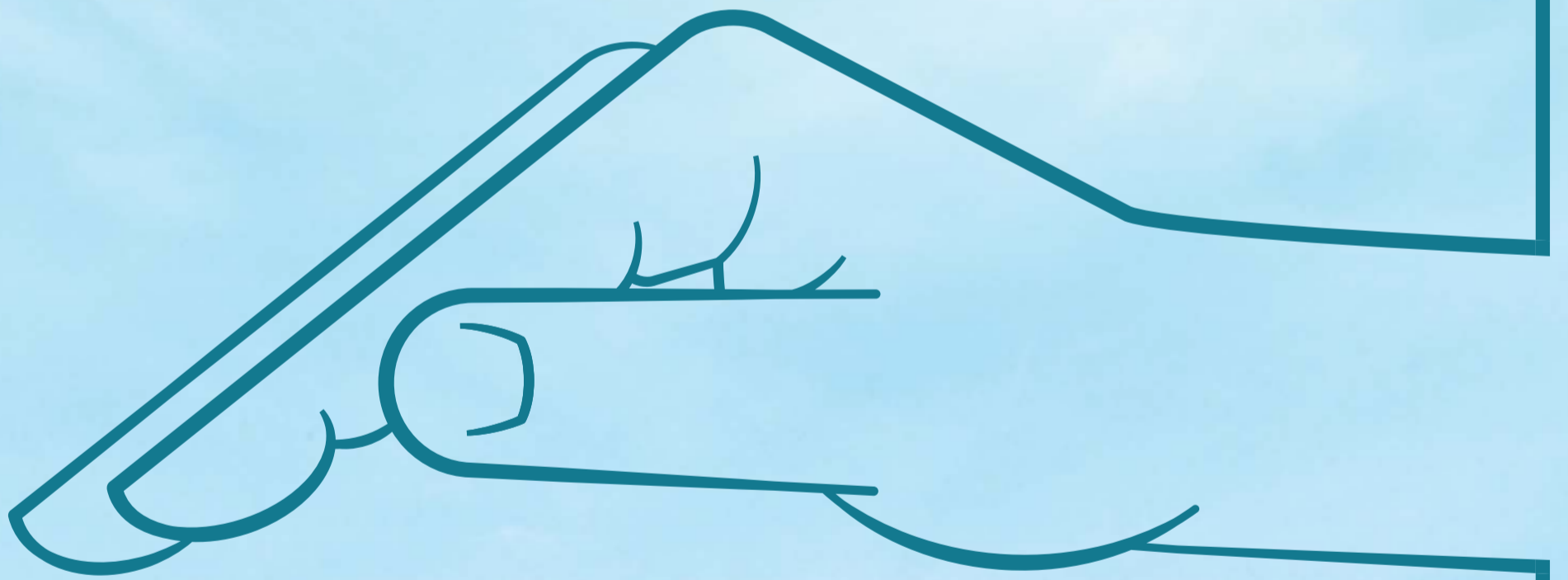
[하나금융그룹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어떤 청소년도 세상 앞에 홀로 서지 않도록  
하나금융그룹은 그루터기재단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적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발전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의 첫걸음  
**BIG STEP FOR TOMORROW**



청소년그루터기재단 | 보호시설 청소년 지원 |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 | 청소년 자살, 중독 예방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 “거점형 어린이집, 고객만족도 평가 95.6점”

### 이상호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

#### 2018년부터 운영, 육아 부담 줄이고 저출산 극복 일조 현재 전국 11곳...중기 밀집 산업단지 지속적으로 확대

“지역거점에 일하는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 보육 환경을 갖춰 국가 당면 과제인 저출산 극복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호(사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의료복지이사는 1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단이 운영 중인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자들의 육아 문제 해소는 물론, 가장 비중 있는 복지 혜택 제공으로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에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2018년부터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장보

육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공단과 지자체가 함께 건립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취약한 중소기업 밀집 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7월 기준 전국에 11개 어린이집이 개원했다. 내년에는 2곳이 추가된다.

이 이사는 “공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 직장어린이집(기존 공공 및 거점형)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2012년부터는 공모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설



명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입소 자격 요건에 대해 이 이사는 “대기업 노동자보다 직장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 자녀를 우선 선발하고 있다”며 “1순위는 부모 모두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

### 도쿄올림픽, 메달 ‘셀프 수여’ 시상식 때 악수·포옹도 금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 선수가 직접 메달을 목에 걸게 됐다. 메달 수여식에서 악수와 포옹도 금지된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다음 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서 메달 수여 방식이 바뀐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화상 기자회견에서 “메달을 목에 걸어주지 않고 정반대로 전달된다”면서 “선수가 직접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반에 메달을 놓는 사람은 소독된 장갑을 착용하며 메달 수여자와 선수 모두 마스크를 쓰고 악수와 포옹을 할 수 없다.

도쿄는 15일부터 올림픽이 끝나는 8월 8일 이후까지 긴급사태를 연장했다. 이날 도쿄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149명으로 집계됐다. 김서영 기자 0jung2@

### ‘열흘 동안 딸꾹질’ 브라질 대통령 장 폐색으로 병원 입원 수술 검토

자이르 보우소나루(사진) 브라질 대통령이 열흘 동안 멈추지 못한 딸꾹질로 결국 입원했다. 정확한 병명은 장 폐색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주치의로부터 장 폐색 소견을 받고 긴급 수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파울루 빌라 노바 스타 병원으로 이송돼 추가 검사를 받았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이 전날 밤 복통을 느껴 브라질리아의 한 병원에 입원했고 딸꾹질을 지속한 원인에 대해 검사받았다”며 “주치의가 장 폐색을 발견해 상파울루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열흘 내내 딸꾹질을 멈추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측근들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말을 못 하겠다. 말을 시작하면 딸꾹질이 다시 나온다”며 고통스러워했다고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대통령이 복부 탈장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19년 1월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고환의 칼에 찔려 한 차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사진출처 보우소나루 트위터



### 국민연금공단 신입 연구원장에 권문일 前 덕성여대 교수 임명

국민연금공단은 15일 신입 연구원장에 권문일 전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권 원장은 국민연금연구원을 거쳐 2001년부터 18년간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와 한국연금학회 회장을 지냈고,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및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사 연금을 망라하는 연금 분야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권 신입 연구원장 임기는 3년이다. 연금 제도, 재정주계, 기금운용 및 평가 관련 연구업무 등 국민연금연구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 유리자산운용 영업전략 부사장에 한정수 前 건설근로자공제회 CIO

유리자산운용은 신입 영업전략총괄(부사장)에 한정수 전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산운용본부장(CIO)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정수 부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산운용본부장(CIO)을 역임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LS그룹 연수원에서 ‘토종꿀벌’ 양봉하는 까닭은

### 안성 ‘미래원’ 내 유휴부지 활용 지구생태 살리기 위한 꿀벌 육성

LS는 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경기도 안성시 소재)이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지구생태 환경을 살리기 위한 토종꿀벌 육성 사업에 동참한다고 15일 밝혔다.

LS미래원은 최근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으로 전 세계에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는 꿀벌 살리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토종꿀벌 양봉 농가 지원을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LS는 LS미래원 내 유휴부지를 토종꿀벌 양봉 장소로 제공(사진)하며, 사업 운영은 지역 농가 살리기 차원에서 안성시 양봉전문가단체인 ‘한봉연구회’가 진행한다.

꿀벌은 식물의 꽃과 꽃 사이를 다니며



수분(受粉)을 하는 곤충으로, 멸종될 경우 인간이 재배하는 주요 100대 작물의 70%가량이 없어질 수 있어 국제연합(UN)이 2017년부터 매년 5월 20일을 ‘세계 꿀벌의 날’로 별도 지정하기도 했으며, 지구 생태 환경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곤충으로 최근 그 의미가 재발견되고 있다.

독일 포르쉐, 영국 롤스로이스와 벤들리, 국내 화장품 회사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외 많은 기업이 꿀벌 살리기 흐름에 동

참하고 있다. 특히 토종꿀벌은 2010년에 유행한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인해 전체토종벌의 90%가량이 폐사하는 등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역 양봉 농가들의 피해도 극심한 상황이다.

LS미래원 양봉 장소에는 토종꿀벌 약 40만 마리가 서식할 수 있는 26개의 벌통이 설치되며, 11월경 수확이 예상되는 60kg의 토종꿀은 LS가 매 연말 개최 중인 나눔 행사를 통해 안성시내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등에 전달된다.

LS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LS그룹 상생경영의 일환”이라며 “건강한 생태환경이 만들어질기 소망하며, 지역사회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우주여행 앞둔 베이조스, 스미스소니언협회에 2억 달러 기부

제프 베이조스(사진) 아마존 이사회 의장이 자신의 우주여행을 앞두고 미국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을 운영하는 스미스소니언협회에 자금을 쾌척한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미스소니언협회는 최근 자신이 창업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직에서 물러난 베이조스로부터 2억 달러(약 2281억원)를 기부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부금

은 스미스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1846년 협회 창립 이래 최대 금액이다.

기부금 중 700만 달러는 항공우주박물관의 시설 개선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이 박물관에 신설할 교육시설 ‘베이조스 러닝센터’의 자금으로 쓰인다.

워싱턴D.C. 중심부 국립공원 내셔널 몰에 있는 박물관 광장 동쪽에 세워질 새 세

터에서는 학생들의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의 교육을 촉진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우주에 대한 오랜 꿈을 품어온 베이조스는 20일 자신이 세운 민간 우주탐사업체 블루오리진의 유인 캡슐 ‘뉴 셰퍼드’ 로켓에 탑승, 약 11분간의 우주여행에 나선다.

변효선 기자 hsbun@

## 인사

◆환경부 ◇과장급 전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김진식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장 박봉근 △환경보건국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팀장 이지현 ◇과장급 승진 △환경보건국 생활환경과장 이경빈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과장 박해영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백승훈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과장 이성진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박광중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유병철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윤승출 △강남세무서장 이용봉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양동규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한창복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김기영

◆한국전력 ◇부사장·본부장 △해외원전부

사장 임현숙 △미래전략기획본부장(부사장) 박현규 △전력혁신본부장 최현근 △상생관리본부장 이정복 ◇본사 처(실)장 △전력시장처장 정학준 △탄소중립전략처장 오현진 △지속성장전략처장 주재각 △커뮤니케이션실장 정재현 △KENTECH지원단장 전찬혁 △상생발전처장 최명호 △에너지신사업처장 이경운 △수요관리처장 박우근 △해외사업기획처장은 상표 △해외사업운영처장 김홍재 ◇지역본부장 △부산울산본부장 이경숙

◆산업은행 ◇중소중견금융 부문 [단장] △네트워크지원실 유원재 △충청지역본부 양재권 [팀장] △네트워크지원실 이석준 △서초 조두일·곽은주 △잠실 정세복 △잠원 김태현 △하남 최치영 △마포 박혜원 △여의도 정용림 △영입부 서영진 △종로 김순덕 △부천 김용준·김태구 △송도 신인우 △시화 최형욱 △안산 김완식 △인천 이종운 △분당 조용호 △용인 장지우 △원주 배선태 △평택 장희철 △부산 김정현 △양산 문성원 △구미 손현숙 △울산 조현갑 △대전

강봉구·윤병훈 △아산 신궁철 △오창 김근식 △광주 박성운 △군산 유현 △목포 정준양 △여수 이도권 △전주 김현구 ◇기업금융 부문 [팀장] △산업·금융협력센터 유현진·이희동 △기업금융3실 이운진 ◇글로벌 사업 부문 [팀장] △무역금융실 박은숙·김선영 [해외 주재원] △상하이 김철희 △베트남 최동욱 △홍콩 신보람 △유럽 이수복 △브라질 이창훈 △자본시장 부문 [팀장] △PE실 전승하 △심사평가 부문 [팀장] △신용평가부 정수진 △리스크관리 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이승준·박윤준·유명환 △금융결제부 김좌진·민경수·유영아 ◇정책·녹색기획 부문 [팀장] △재무기획부 이은정 ◇경영관리 부문 [팀장] △총무부 조만숙 ◇벤처금융본부 [단장] △벤처기술금융실 제정용 [팀장] △스케일업금융실 성혁준 ◇해양산업금융본부 [팀장] △해양산업금융실 이동훈 ◇구조조정본부 [팀장] △기업구조조정3실 손우성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 [팀장] △기금운용국 이춘원 ◇자금시장본부 [팀장] △자금부 홍성

기 △금융교육실 김기훈 ◇PF본부 [팀장] △PF1실 김중철 △연금신탁본부 [팀장] △연금사업실 이동주 △IDT본부 [팀장] △IT기획부 이성영 △코어금융부 박지현 △디지털금융부장관실 △디지털전략부 최은미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미래전략개발부 최현희 △산업기술리서치센터장인우 △한반도신경제센터 장명수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조용훈 △정보보호부 [팀장] △정보보호부 송미정

◆수출입은행 ◇선임 △프로젝트금융본부장 김형준 △경영사업본부장 박종규

◆국토안전관리원 △부원장 겸 재난안전본부장 강부순 △기반시설본부장 신원규 △건설안전본부장 권혁기 △생활시설본부장 이종우 △안전성능연구소장 김동희 △감사실장 강영구

◆동화약품 △연구소장 황연하

◆NF에어 △대표이사 김문권

◆싱글리스트 △발행인 김태혁 △편집인 윤원준 △주필 김재성

김수원의 복지플랫폼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노후에 질 좋은 돌봄을 받기 원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부당하게 겪는 인권침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돌봄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보이지 않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사회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얼마 전 한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노인을 학대해온 사실이 CCTV 영상을 통해 폭로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마침 한 달 전인 6월 15일은 UN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과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노인복지법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노인학대는 인권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다.

혹시 믿을 수 있는 가족 아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에게 돌봄을 맡겨서 노인학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노인학대 신고 1만 6973건 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총 6259건으로,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가정 내(88%)가 가장 많고,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일어난 경우가 8.3%이다. 학대 행위자도 아들(34.2%), 배우자(31.7%), 노인복지시설 종사자(13%), 딸(8.8%) 순으로 나타났다. 바로 가정 내에서, 자녀와 배우자 등의 가족에 의해 일어나는 노인학대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요양시설에서 신고조차 되지 않는 학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

라도, 타인 아닌 가족에 의한 학대의 현실은 우리가 몰랐던 노인 돌봄의 민낯이다.

그런데 노인돌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또다른 진실은 아직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폭언, 폭행, 성추행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돌봄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그것이다. 전국 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지난 3월에 실시한 전국의 요양보호사 5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무 중 육체적, 정신적 상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1.3%에 달했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욕설을 들은 경험은 83.7%, 성희롱 경험도 43.3%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보호자로부터 욕설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에서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자가 당하는 인권침해는 본질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권력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용자 선택권을 가진 이용자 측이 불안정 고용층인 돌봄노동자에게 행하는 갑질과 폭력인 것이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가지면서도 영세한 민간

사업장의 문제를 동시에 가진 장기요양기관들이 가진 모순적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돌보는 어르신 혹은 그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처우와 폭력적 행동을 당할 때 요양보호사가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보호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나 가족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기관에서 업무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돌봄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국가와 요양기관 양자가 모두 요양보호사의 보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요양보호사만 인권교육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요양서비스 수급자와 그

족도 필수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필요한 상황인 경우 2인 1조로 돌봄을 제공하게 하는 업무 구조도 도입되어야 한다. 보호 대상자의 인권과 돌봄 제공자의 노동인권은 동등하게 중요하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돌봄 제공자, 특히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줄 좋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질 것이고, 돌봄노동 환경이 열악할수록 좋은 인력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노후에 질 좋은 돌봄을 받기 원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부당하게 겪는 인권침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돌봄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보이지 않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사회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돌봄노동자, 더 나아가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을 함부로 대해 온 잘못된 인식과 언행을 바로잡는 것이 복지국가의 질 좋은 서비스를 담보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대방로

김재수
동국대 석좌교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식품 대통령'을 기대하며

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대통령, 안보 대통령, 외교 대통령도 필요하나 '식품 대통령'이 더욱 중요하다. 식품의 안정적 공급이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나라가 안정된 것은 식품 공급이 안정됐기 때문이다.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고 수급 불안이나 사회혼란이 없었다. 의료진의 헌신에 못지않게 식품 공급 체계가 안정된 것은 중요하다. 먹거리 불안으로 사회불안과 체제 전복 사례는 많다. 제2차 대전 시의 독일 패배, 구소련의 멸망, 북아프리카의 혁명, 북한의 고난 행군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당면한 기후변화 위기 속에 먹거리의 안정 공급은 더욱 중요하고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기본적 자격이다.

식품 대통령이 필요한 이유는 식품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먹거리 시장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한다.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 외교나 통상 협상, 자유무역협정 등 글로벌 이슈는 곡물 시장에 집중됐다. 국제 곡물 시장은 다국적 기업이나 거대 자

본이 지배하기에 이들의 동향, 시장 상황, 국내 수급 등을 알아야 한다. 국제 감각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당시에 '한 톨의 쌀도 수입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곤욕을 치른 겪은 전직 대통령을 기억한다.

향후 식품 부문은 IT, BT, NT 등 최첨단 과학과 기술이 주도한다. 이미 식당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로봇이 배달해 준다. 로봇이 주방 도우미나 홀 서빙도 대신한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식품의 넥스트 노멀(Next Normal)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식품은 대표적 융복합 산업이다. 제조에도 다양한 식재료가 사용되며 여러 가지 맛과 기술이 요리에 들어간다. 배달서비스도 나날이 발전한다. 가장 활발하게 영역이 파괴되는 분야가 식품 분야이다. 기존 산업이 파괴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는 이야기다. 손재주가 발달한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 장점이 있다. 식품 부문은 사람과 산업과 지역이 융복합돼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분야이다. 미래학자인 제이션 쉐커도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농산

업을 들었다. 식품의 미래변화와 고부가가치를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식품 산업은 매우 광범위하고 관련 종사자가 많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이 225만 명이다. 생산물의 가공, 유통, 저장, 수출, 종자, 비료, 농약, 농기구, 토양 등의 식품 관련 종사자는 매우 많다. 2019년 기준으로 식품 제조업체가 62만 개, 종사자는 38만 명이다. 외식업체 수는 73만 개, 종사자가 220만 명이다. 식품 부문 전후방 연관 종사자를 합치면 국민의 18%인 약 900만 명이나 된다. 지난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귀촌한 인구도 35만 명이다. 또 식품 시장은 산지 생산부터 도매시장, 공판장, 소매시장, 마트 등 종사자가 많고 복잡한 먹거리 생태계가 있다. 이들이 여론을 좌우하고 민심을 주도한다.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이 민심을 얻고자 시장으로 가는 이유이다. 차기 대통령은 농식품 산업을 이해하고 종사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전통 시장에서 국밥 팔아먹는 대통령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어렵다. 차기에 '식품 대통령'을 기대하는 이유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로알 아문센 명언
"승리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며, 사람들은 이를 행운이라 부른다. 패배는 미리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오며, 사람들은 이를 불운이라 부른다."

노르웨이의 극지탐험가. 1911년 인류 최초로 남극점 도달에 성공했다. 대서양에서 북극해를 거쳐 태평양에 이르는 북서항로를 최초로 항행해 북극(北極) 위치 확인에도 성공했다. 오늘날 그의 출생일이다. 1872-1928.

☆ 고사성어 / 겸청명명(兼聽則明)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면 시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 현명해지고 편협한 말만 들으면 어리석어진다[兼聽則明 偏信則暗]." 위징(魏徵)이 당태종(唐太宗)에게 명군이 되는 비결로 한 말에서 유래했다. 출전 신당서(新唐書) 위징전(魏徵傳).

☆ 시사상식 / 그릿(GRIT)
성장(Growth), 회복력(Resilience),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끈기(Tenacity)의 줄임말이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앤젤라 덕워스가 개념화한 용어다. 성공과 성취를 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투지 또는 용기를 뜻한다.

☆ 신조어 / 실친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친구가 늘어났다. 인친(인스타그램 친구), 폐친(페이스북 친구), 트친(트위터 친구) 등으로 세분화되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던 친구는 '실제 친구', 즉 실친으로 불리게 됐다.

☆ 유머 / 미국에선 흔한 부사장
아내에게 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말하자 "그까짓 부사장? 내가 가는 슈퍼마켓에는 쇼퍼백 담당 부사장까지 있다구요"라며 시큰둥해했다. 화난 남편이 슈퍼마켓에 전화를 걸어 쇼퍼백 담당 부사장 좀 바꿔 달라고 하자 친절한 목소리가 이렇게 되돌렸다. "중이 쇼퍼백 담당 말입니까? 비닐쇼퍼백 담당 말입니까?"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최근 세계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은 단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뿌린 '헬리콥터 머니'로 과열된 경제를 연착륙시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어서다. 기준금리 인상 예상 시점을 다소 앞당기기는 했지만, 연준의 입장은 확고하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것이다. 긴축 전환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신중함을 두고 비판이 이어진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뒤늦은 대응이 결국 경기침체를 촉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의 경고에도 연준은 조심스럽다. 선부른 시장 개입이 경기침체로 이어진 과거 경험

기자수첩



김서영 국제경제부/0jung2@

코로나發 인플레, 연준의 고차방정식 풀기

을 경계해서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조성된 저금리 환경에서 투기 열풍이 심상치 않자 벤저민 스트롱 당시 연준 의장은 긴축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물가 하락과 경기하강을 초래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연준과 당

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반대 입장 모두 일견 타당하지만, 문제는 변수다. 현재는 과거만으로 풀 수 없는 고차방정식이다. 당장 델타 변이 확산으로 경기회복에 다시 경고음이 커졌다. 무섭게 오르던 원자재 가격도 꺾였다. 이는 연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연준도 장담해서는 안 된다.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단계에 걸쳐 양적완화에 들어간 반면 지난해엔 처음부터 무제한 양적완화에 돌입했다. 2008~2014년 연준이 양적완화로 시장에 풀 돈은 4조5000억 달러(약 559조 원)이지만, 이번엔 1년 새 7조 달러에 달한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정치 선행법을 배제한 연준의 냉정한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도 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자산시장이 닷컴 버블을 뛰어넘어 사상 최대치로 부른 만큼 금융시장의 '긴축 발작'은 감당하기 힘든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이슈&인물

회계법인 첫 '미디어컨설팅팀' 출범

한창희 딜로이트안진 이사

# “디지털 광고 영향력, 새로운 시장 원칙 필요”

“다매체 환경 속에서 디지털 광고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광고시장에도 신뢰성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창희 딜로이트안진 회계감사본부 이사는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회계법인 최초로 미디어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좋은 선례를 만들어 광고시장 투명성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해외 광고시장, 가격검증 수요 꾸준

지난달 딜로이트안진이 회계법인 빅4 최초로 ‘미디어컨설팅팀’을 출범했다. 기업의 광고집행 효율성과 매체별 예산 적합성을 평가하는 ‘미디어 인증(Media Assurance)’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고·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광고 집행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과거에 비해 중요해졌고,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각 분야의 전문가 영입에도 공들였다. 회계사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 리서치 전문회사와 광고 대행사에서부터 이커머스(e-commerce) 분석, 광고비 최적화 검증 등 미디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20여 년간 제일기획 등 광고업계에서 활동한 한창희 이사는 올해 딜로이트안진에 합류하면서 전력을 다졌다.

그는 굵직한 광고 조사 프로젝트를 수행한 ‘베테랑’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통신광고비 조사프로젝트 자문위원을 지내면서 다수의 디지털 광고 효과 조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합리적인 광고 예산을 설정하고 타깃 고객을 선정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그가 추구하는 미디어 서비스의 방향이다.

한 이사는 “국내보다 작은 규모의 아시아 시장에서도 미디어 인증 서비스가 활성화됐다”며 “광고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괴리가 있다”며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세계광고주협회(WFA: World Federation of Advertiser)의 56개 주요 회원사의 2018년도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광고주의 90% 이상이 미디어 인증 서비스와 가격 검증에 대한 벤치마킹을 활용하고 있다. 81%는 정기적이거나 영구적인 미디어 인증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71%의 광고주가 미디어 가치의 객관적인 시각을 수립하는 데 이런 서비스가 필수적이라고 답하면서 미디어 인증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딜로이트안진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딜로이트AP를 포함한 글로벌 네트워크와도 전략적으로 협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한 이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이 커지고, 유통 채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면서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업계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비용을 쓰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적의 광고비로 마케팅 효과까지 높인다면 효율성과 효과성, 두 마리 토끼 모두 챙길 수 있다”며 “(광고주들에게) 비용을 가장 많이 지불하는 미디어 분야에서 기업이 어떻게 비용을 집행하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창희 딜로이트안진 회계감사본부 이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광고가 유통 채널의 기능을 수행할 만큼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라며 “광고도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광고조사 프로젝트 수행 베테랑 회계사·이커머스·미디어 등 전문가들 영입해 전담팀 꾸려

왜 회계법인이 미디어 검증?

광고 집행 효율·적절성 검토 시장 투명성 확보하자는 것

소비자 입장에서 광고효과 고민 시장전략 컨설팅으로도 확장 광고업계도 ESG DNA 심어야

### 스포츠 경기 심판 같은 역할 필요

회계법인은 말 그대로 주로 세무·재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인이다. 한 이사는 딜로이트 안진이 세무·회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미디어 인증 서비스에 뛰어든 배경 중 하나로 ‘투명성’을 꼽았다. 광고·마케팅 업계는 평가 지표가 명확하지 않고, 성과를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워 비합리적인 관행대로 처리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광고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어떤 광고주는 수수료가 비싸다고 하고, 어떤 광고주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토로한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정보 비대칭이 심하다 보니 시장 참여자 사이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광고주가 얻을 수 있는 정보 소스 역시 대행사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스스로 적절성을 평가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 이사는 광고 시장에도 집행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검토하는 ‘스포츠 경기 심판’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고주, 대행사, 매체(미디어) 등 어떤 이해관계에도 휩쓸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안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해당 산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인·검증 업무를 하면 문제점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우리 미디어컨설팅팀

이 각 분야 전문가 영입에 공들인 배경”이라며 “광고·미디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통계 전문가, 회계사 등 전문 인력들이 함께하면서 서비스 품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광고효과 ‘고객 구매 여정 분석’ 관심

한국에서 미디어 인증 서비스는 이제 첫발을 뗐다. 딜로이트안진의 미디어 컨설팅팀은 광고 인·검증 외에도 시장 전략 컨설팅 사업 확장에도 나선다. 오랜 기간 소비자 관점에서 광고 효과를 고민했던 그답게 최근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분야로 ‘고객 구매 여정(CDJ: Consumer Decision Journey)’을 꼽았다.

CDJ는 고객이 광고를 접한 뒤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경로다.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다양한 미디어를 거치기 때문에 경로가 복잡해지는 추세다. 한 이사는 “과정이 복잡해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투자는 부족하다”며 “미지의 영역을 뚫기 위해선 CDJ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광고도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광고·마케팅 업계도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움직임에 함께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WFA(세계광고주연맹)는 ‘플래닛 서약(Planet Pledge)’을 통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매일 수십억 명씩 개인과 연결되는 광고의 무게를 느끼고, 마케터들도 지속 가능한 지구를 고민하지는 취지다.

그 역시 한국 광고 시장에 ESG DNA를 심는 데 함께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 이사는 “글로벌 광고 시장 변화를 살펴보면, 환경 외에도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까지 마케팅 활동과 연관시키는 노력이 엿보인다”며 “우리(국내 시장)도 환경을 넘어서 ESG 전반으로 노력이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계법인 최초의 미디어컨설팅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한국 광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김예슬 수습기자 viajeporlune@

## 사설

# 자영업 무덤 된 최저임금 인상·코로나19 확산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이후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올해 6월까지 31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9개월째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도 버거운데 작년 부터 덮친 코로나19 충격으로 자영업이 계속 영세화하고, 이들의 고용도 줄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9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 명으로 오히려 8만3000명 줄었다. 2018년 12월 이후 줄곧 감소세다. 고용원 없는 업자는 430만 명으로 11만2000명 늘어 2019년 2월부터 연속 증가했다. 고용한 직원을 내보내거나, 창업 때부터 따로 직원을 두지 않고 1인 및 가족경영으로 버티는 곳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 있는 곳의 비중이 22.9%로,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7월(22.9%) 이후 21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 비중은 2018년 1월 30.1%로 가장 높았다가, 최저임금이 16.4%나 오르면서 줄기 시작했다. 2018년 말 29.4%로 감소하고, 최저임금이 다시 10.9% 인상된 2019년 말 26.2%로 떨어졌다.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낮아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로 고용원 있는 업자 비중이 23.9%로 추락했다. 올해도 이런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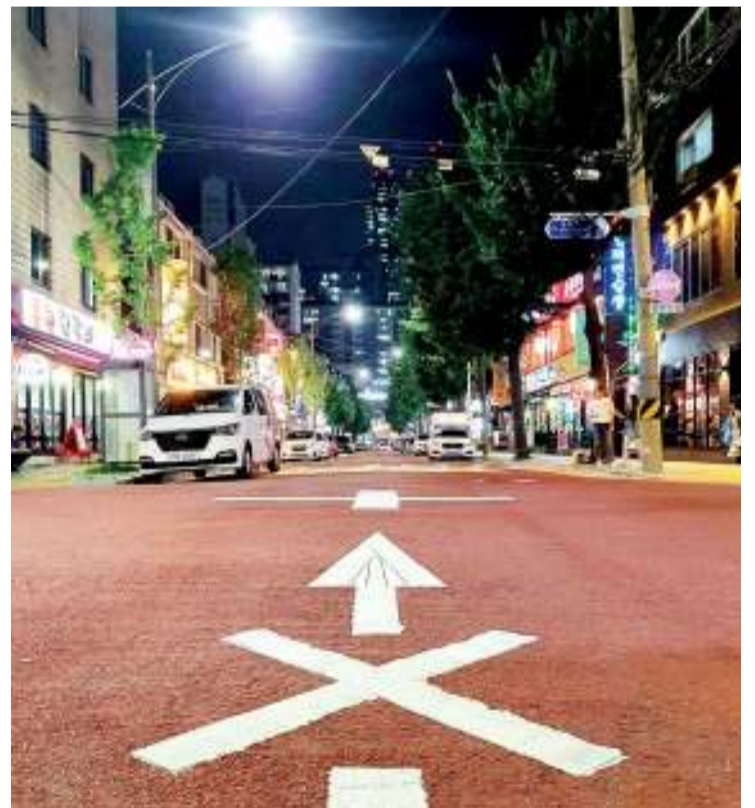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이 자영업의 무덤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지나친 인건비 부담으로 자영업 기반이 무너지고 고용도 급격히 줄어든다. 6월 고용통계에서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8만 2000명 늘었지만,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숙박음식업의 취업자는 15만2000명 줄어 업종별 감소폭이 가장 컸다. 대부분 취약계층의 일자리다.

내년 최저임금이 다시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났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각종 지원금과 대출로 연명하는 지금 처지에서 임금을 더 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임을 호소하고 있다. 그나마 겨우 쓰고 있는 직원이나 알바들을 내보내야 한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나빠지고 있다.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고, 대면서비스 중심인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자영업자들이 앞선 데 덮친 격의 치명적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또 인상된 내년 최저임금의 불복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이미 지킬 수 없는 최저임금이다. 법정 최저임금도 못 주는 미만율이 작년 15.6%에 달했다. 주로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에서 높은 미만율을 보인다. 이런 악순환이 가속화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만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 한 킷



## 멈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5일 0시 기준 1600명을 기록하며 ‘4차 대유행’이 본격화했다. 정부는 25일까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발령했다. 서울의 한 먹자골목 거리가 이른 저녁 시간임에도 썰렁하다. 일부 점포는 아예 문을 걸어 잠갔다. 상황을 보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하를 검토한다는 방역 당국. 현재 확산세와 방역 지침이 앞으로 이어질까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 하이브리드를 더 편리하게 SANTA FE Hybrid



15.3 km/ℓ 연비는 기본,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로 편리함까지  
싼타페 하이브리드 출시



**bluehands**  
차량관리 서비스는 blue hands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원혜택: 블루핸즈 케어서비스/긴급출동/블루포인트/객인서비스

■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콜 서비스 080-6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 가솔린 1.6T 하이브리드 2WD 자동 6단(17"): 복합 15.3km/ℓ(도심:16.4km/ℓ, 고속도로:14.0km/ℓ) | CO2 배출량 106g/km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800kg(7인승), 1,750kg(5인승) | 2등급 ▶ 가솔린 1.6T 하이브리드 2WD 자동 6단(19"): 복합 14.3km/ℓ(도심:15.2km/ℓ, 고속도로:13.3km/ℓ) | CO2 배출량 114g/km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830kg(7인승), 1,780kg(5인승) | 2등급 ▶ 가솔린 1.6T 하이브리드 2WD 자동 6단 빌트인캠(17"): 복합 15.0km/ℓ(도심:16.1km/ℓ, 고속도로:13.8km/ℓ) | CO2 배출량 108g/km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800kg(7인승), 1,750kg(5인승) | 2등급 ▶ 가솔린 1.6T 하이브리드 AWD 자동 6단(17"): 복합 13.4km/ℓ(도심:14.0km/ℓ, 고속도로:12.6km/ℓ) | CO2 배출량 122g/km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870kg(7인승), 1,820kg(5인승) | 3등급 ▶ 가솔린 1.6T 하이브리드 AWD 자동 6단(19"): 복합 13.1km/ℓ(도심:13.8km/ℓ, 고속도로:12.3km/ℓ) | CO2 배출량 125g/km | 배기량 1,598cc | 공차중량 1,900kg(7인승), 1,850kg(5인승) | 3등급 ※ 동일 사양(구동축,인승,타이어) 모델에 "빌트인캠"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차종은 기본차와 빌트인캠 연비 통합 인증 사양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